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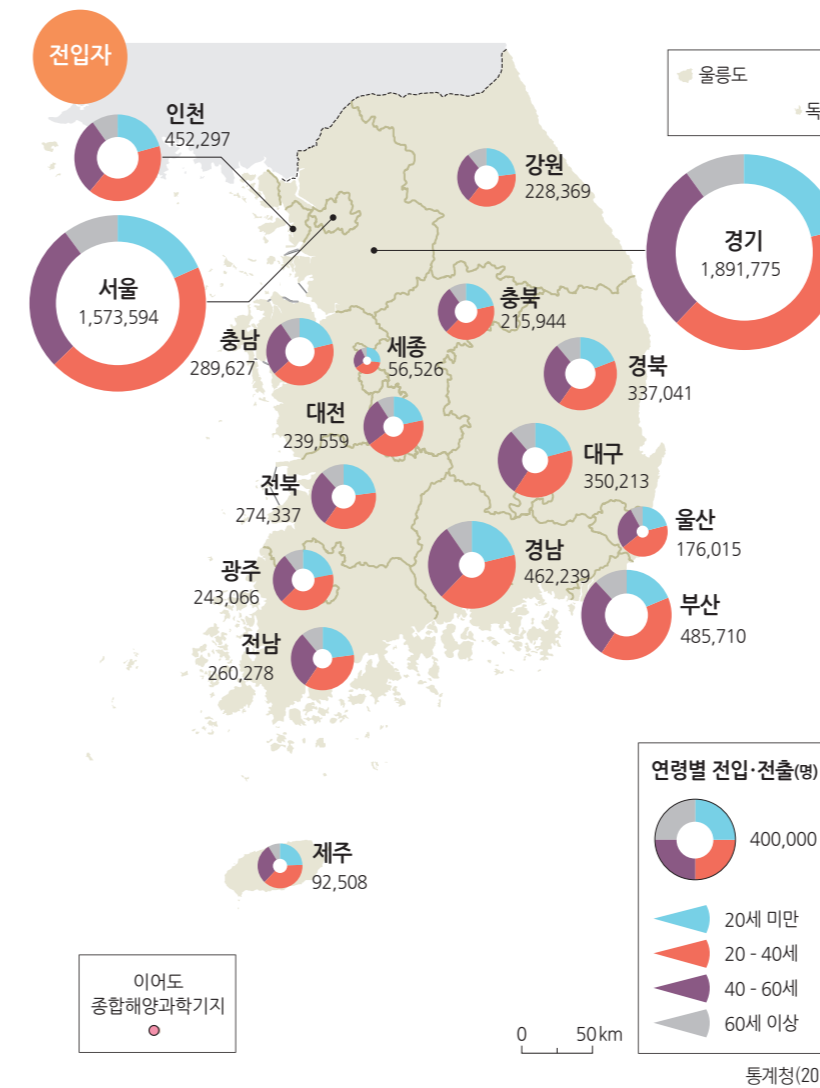
# 우리나라 안에서의 인구 이동

인구 이동은 거주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을 말한다. 통근이나 통학 그리고 단기간의 이동은 인구 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구 이동을 국내 이동, 국가와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을 국제 이동이라 한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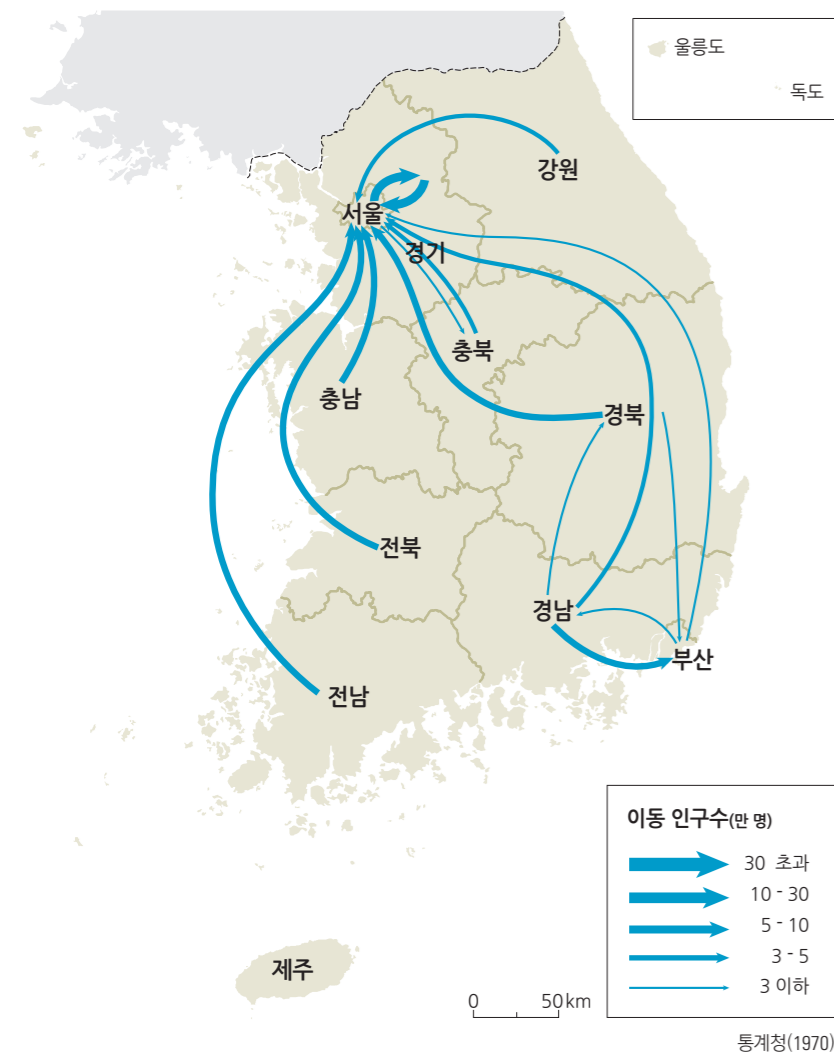
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환경 오염 등이 심해 도저히 살 수 없어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는 보다 좋은 일자리나 교육 여건, 문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국내 이동은 산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다 1990년대 이후 교통의 발달과 고령화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시·도간 인구 이동은 20~40세 연령대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20~40세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여서 좋은 직장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과 자식들이 교육받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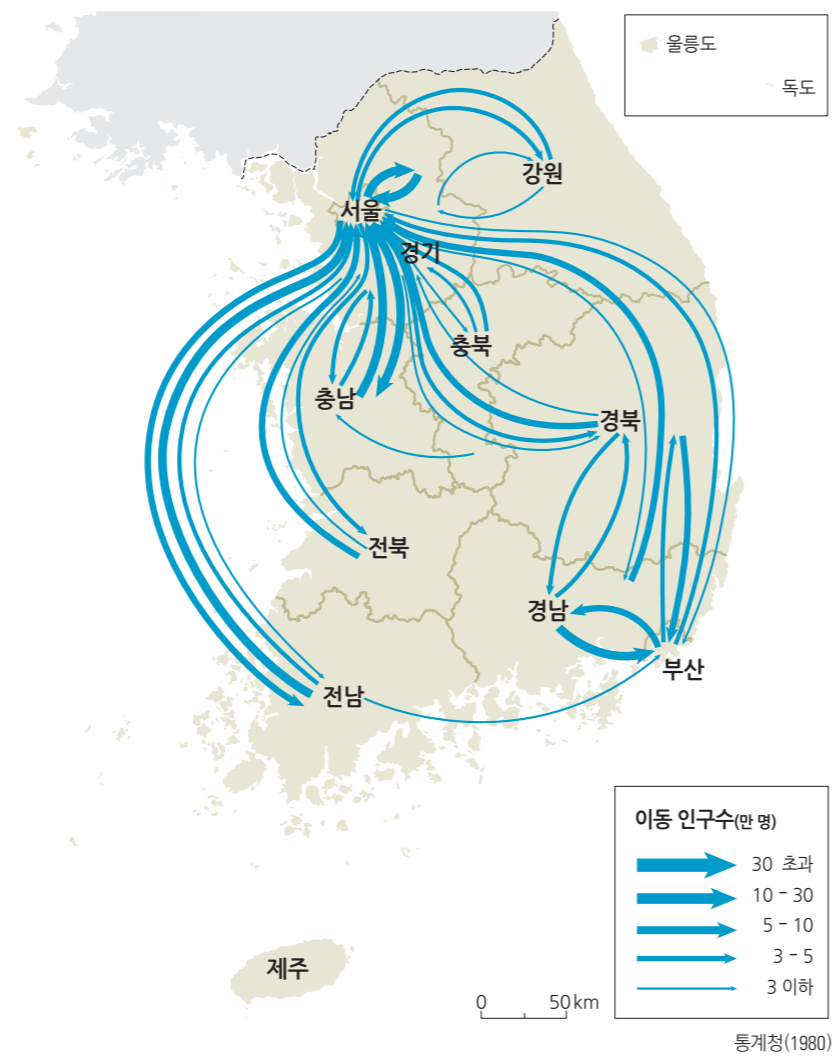
연령대별 시·도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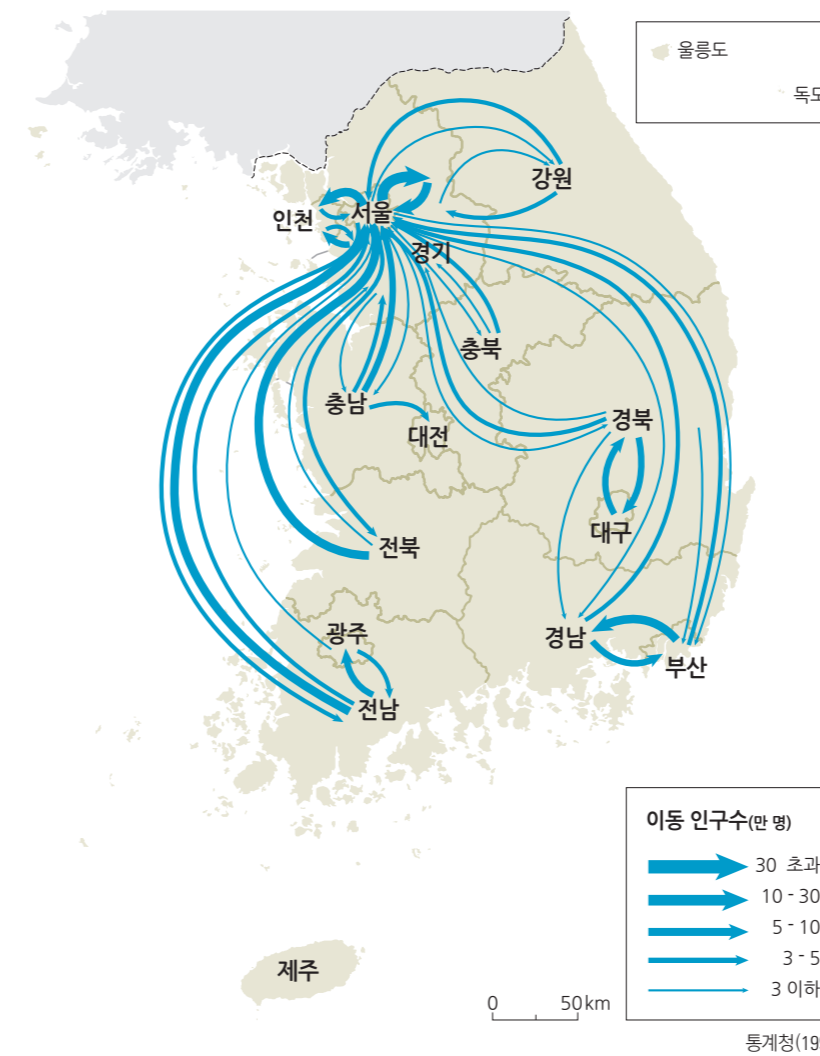
1970년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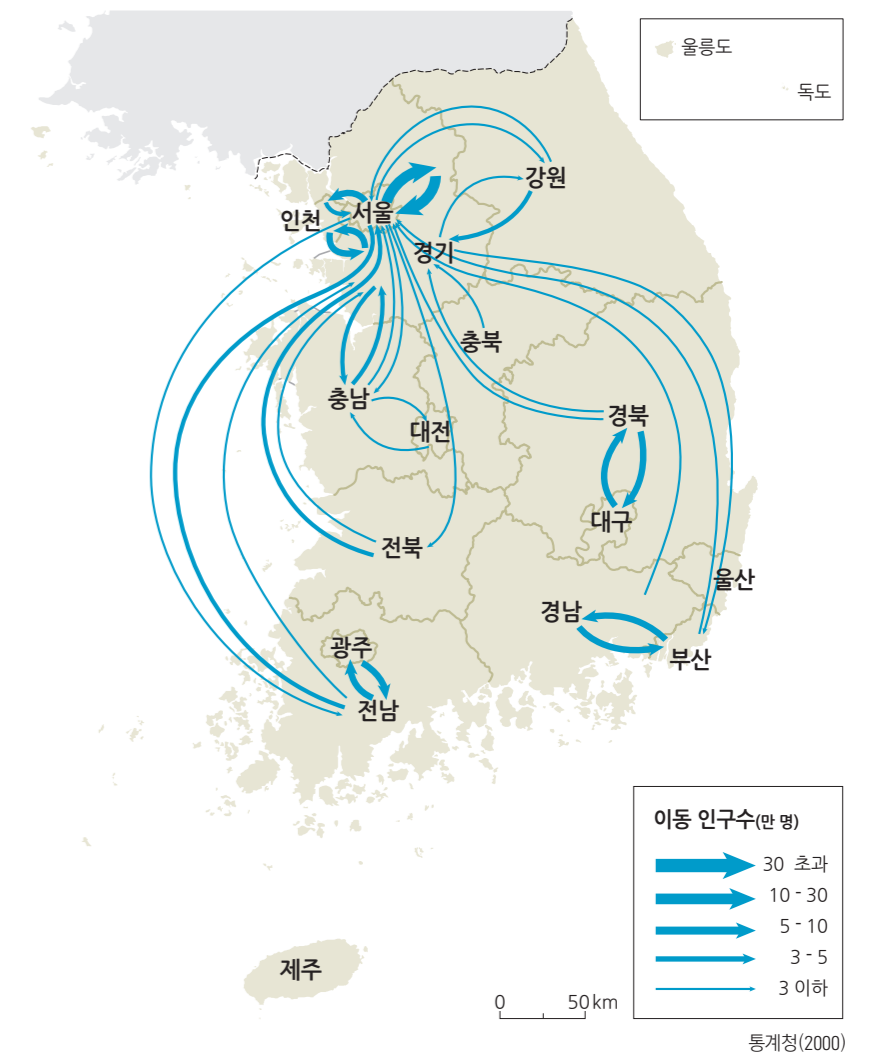
1980년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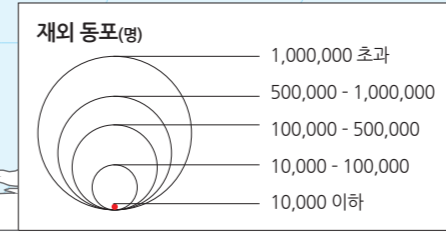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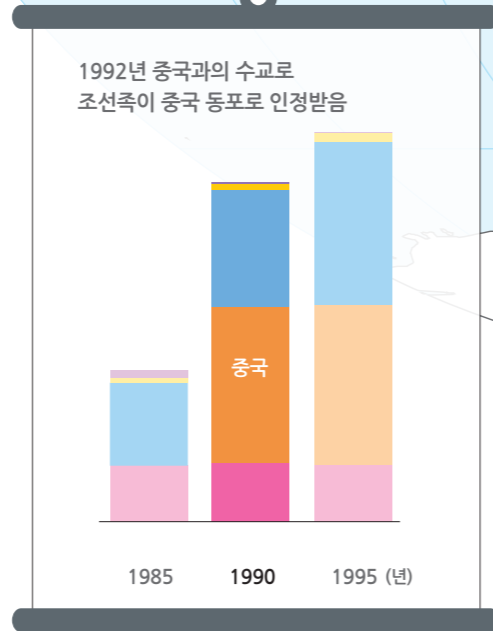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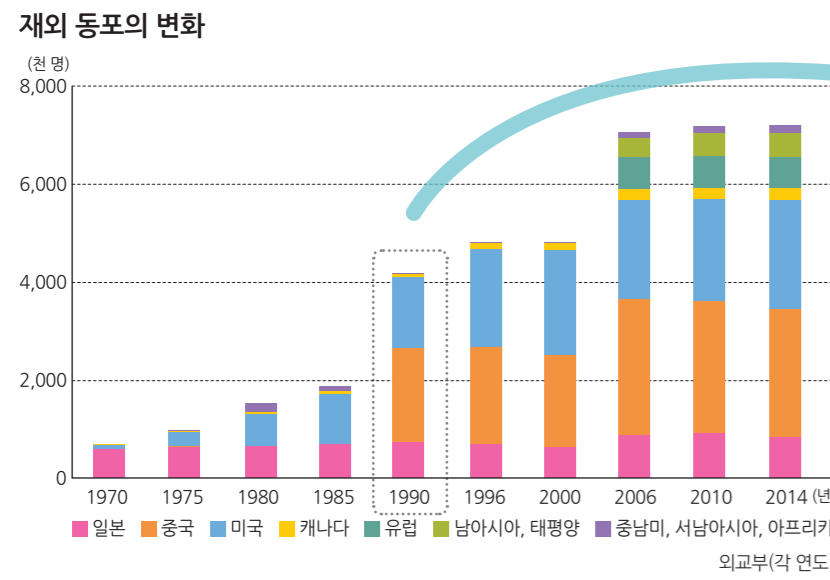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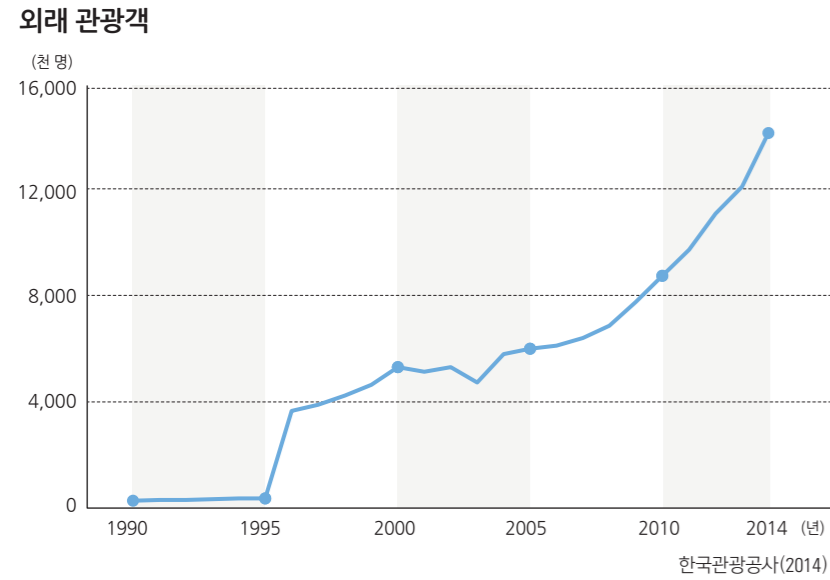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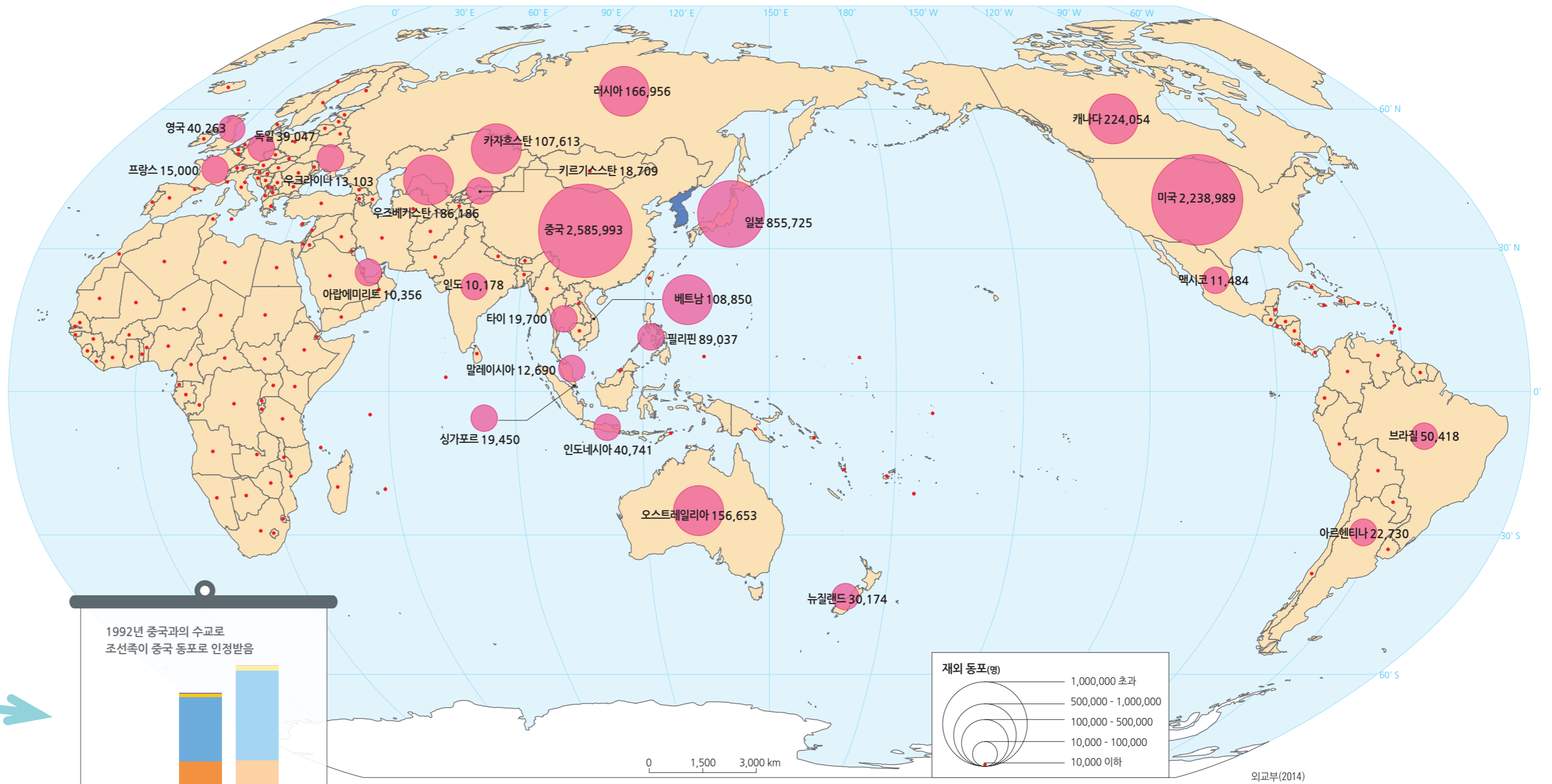
1990년의 인구 이동



2000년의 인구 이동



# 국가 간 인구 이동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재외 동포라고 한다. 재외 동포는 2014년 현재 718만 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 구소련 지역 등에 많이 거주한다.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교 이후 조선족이 중국 동포로 인정받으면서 재외 동포 숫자가 199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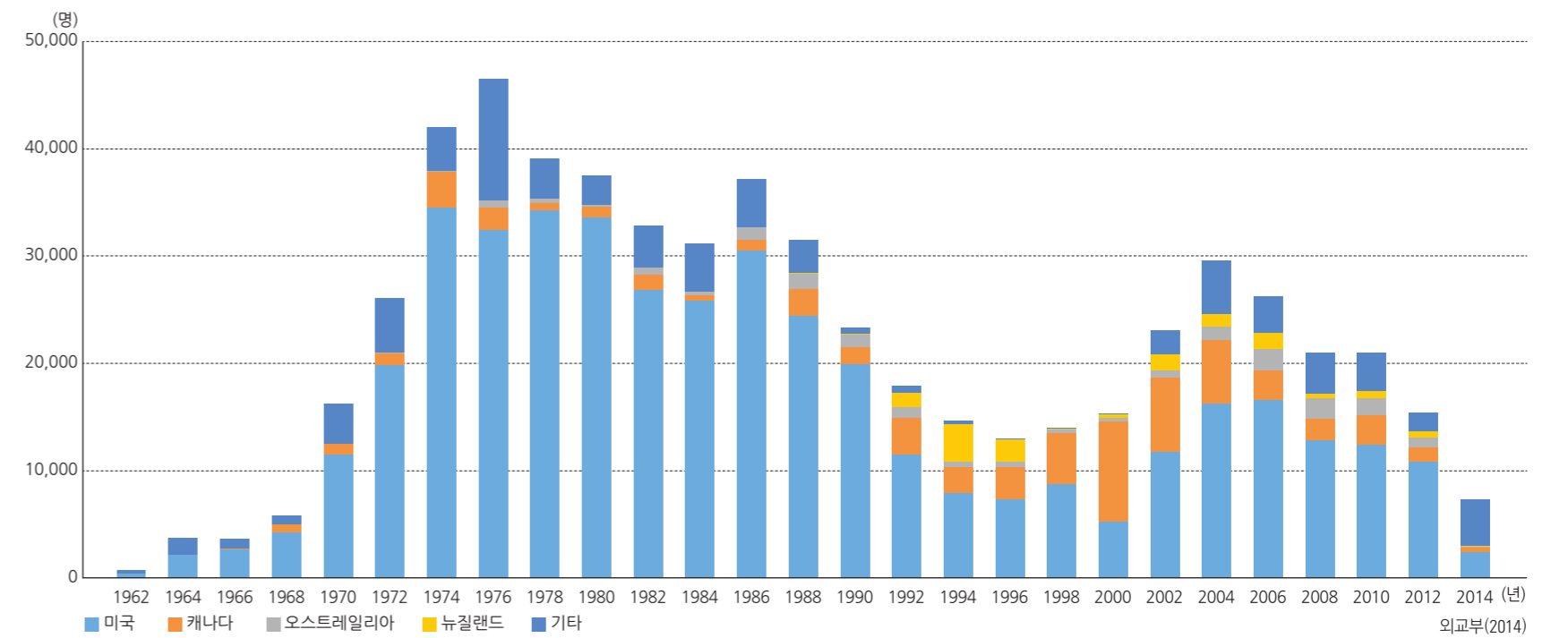
내국인의 국외 이주는 초기에는 미국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점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양한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우리 국민의 국외 이주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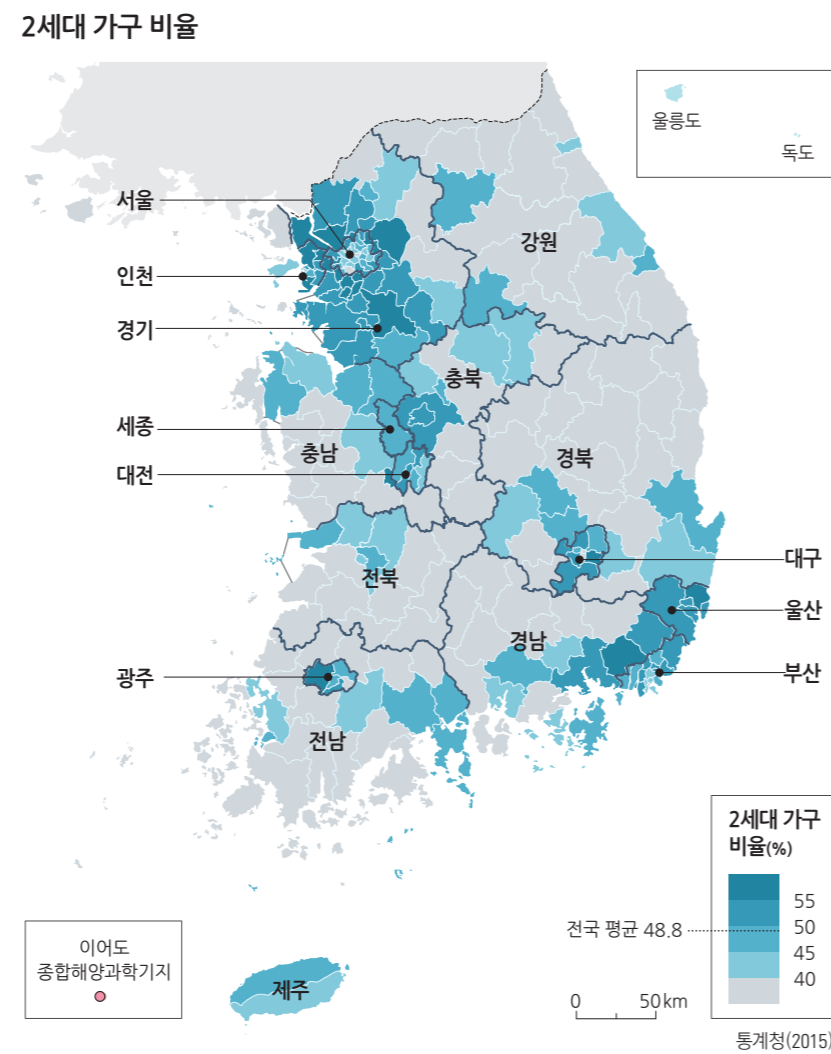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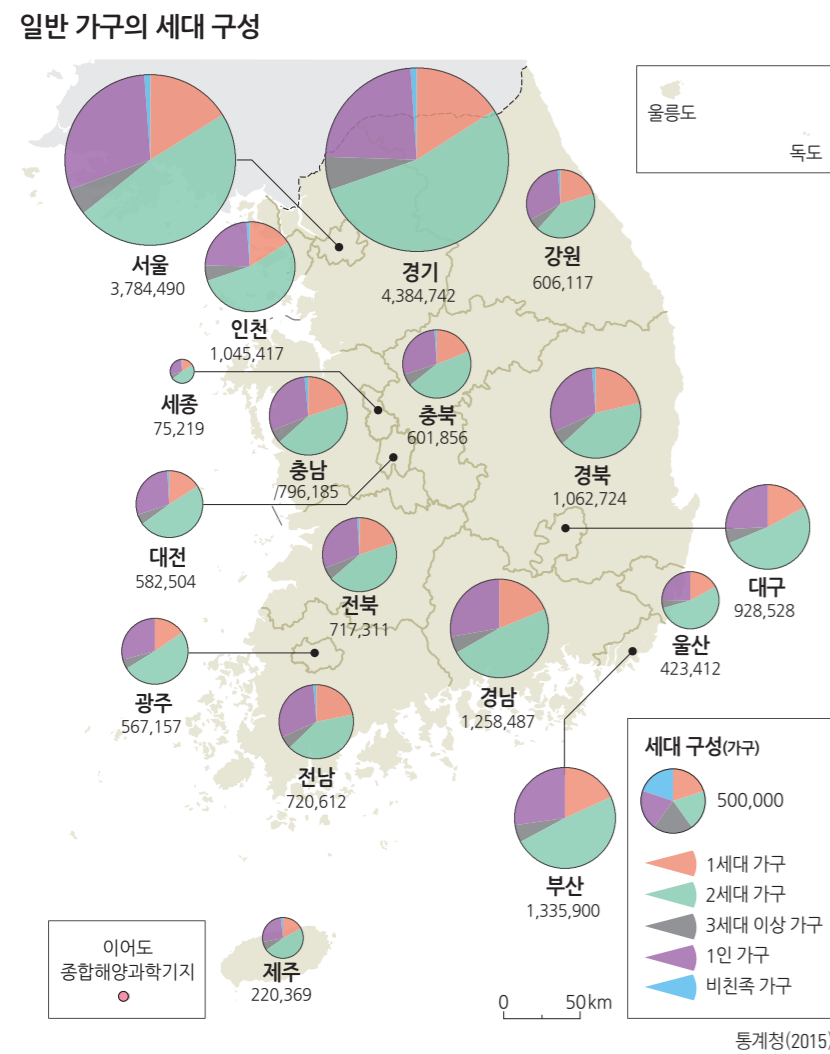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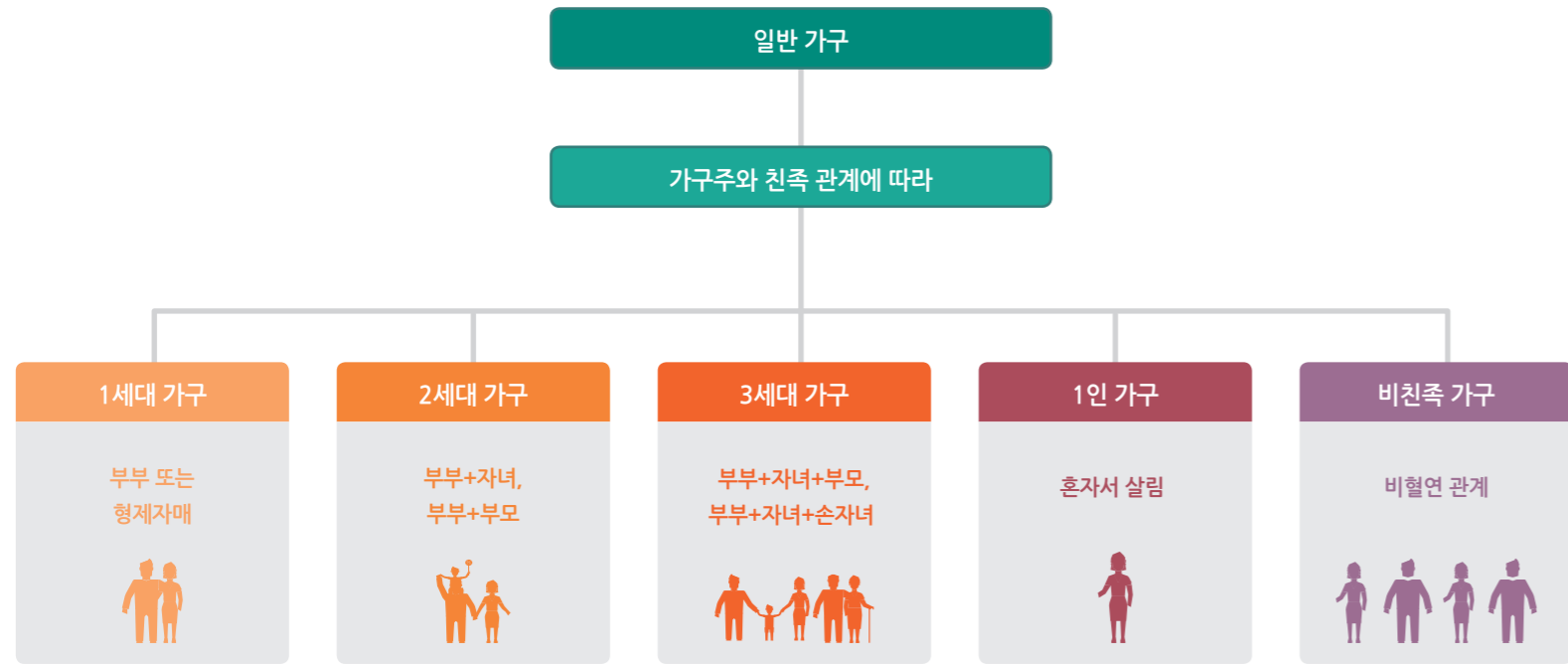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14년 약 18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불법 체류자는 2014년 약 21만 명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사람들은 2012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및 역사적인 유적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

## 우리 국민의 국외 이주



# 우리나라 가구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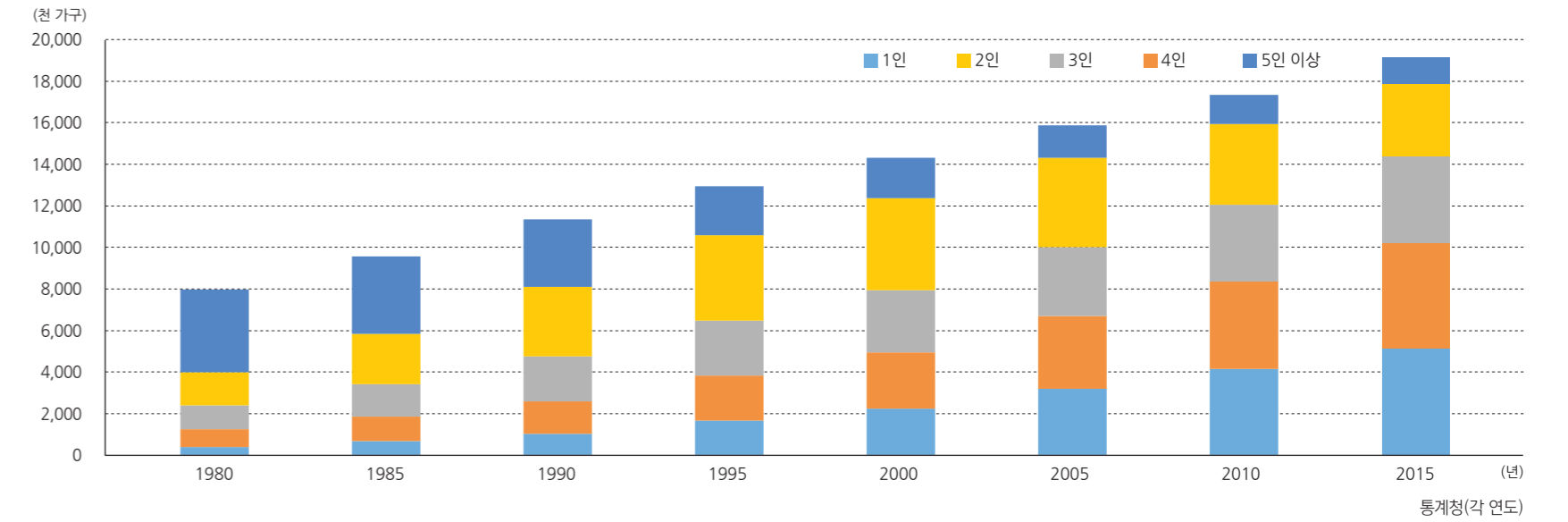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세대 구성은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거나 부부와 부모가 함께 사는 2세대(48.8%)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27.2%)가 두 번째 비율을 차지한다.

1980년에는 5인 이상 가구원의 비율이 50%로 최대인 데 비해 1인 가구원은 4.8%에 불과하였다.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27.2%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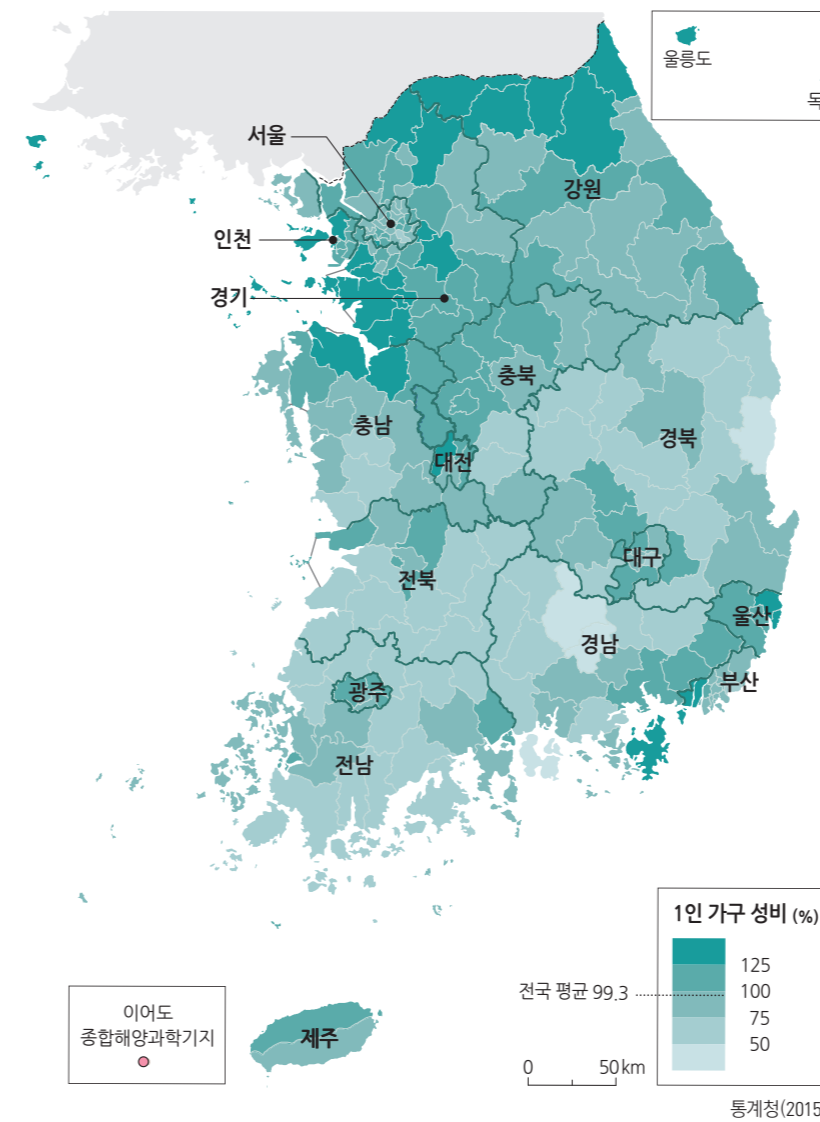
최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인 가구가 26.1%로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 이유는 결혼관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의한 미혼 여성의 증가, 이혼 등 혼인 상태 변화와 평균 수명 연장, 배우자 사별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청년층의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성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촌 지역이 낮으며, 공장 지역 및 대도시 지역이 높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사를 짓는 노인 부부가 거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며, 공장 및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떨어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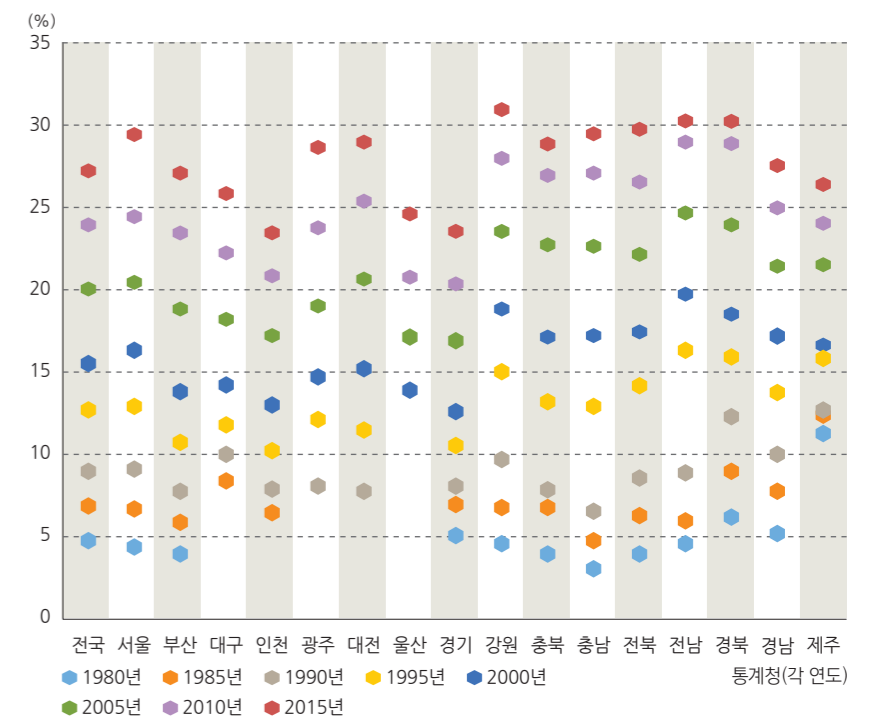
## 가구원의 변화



## 1인 가구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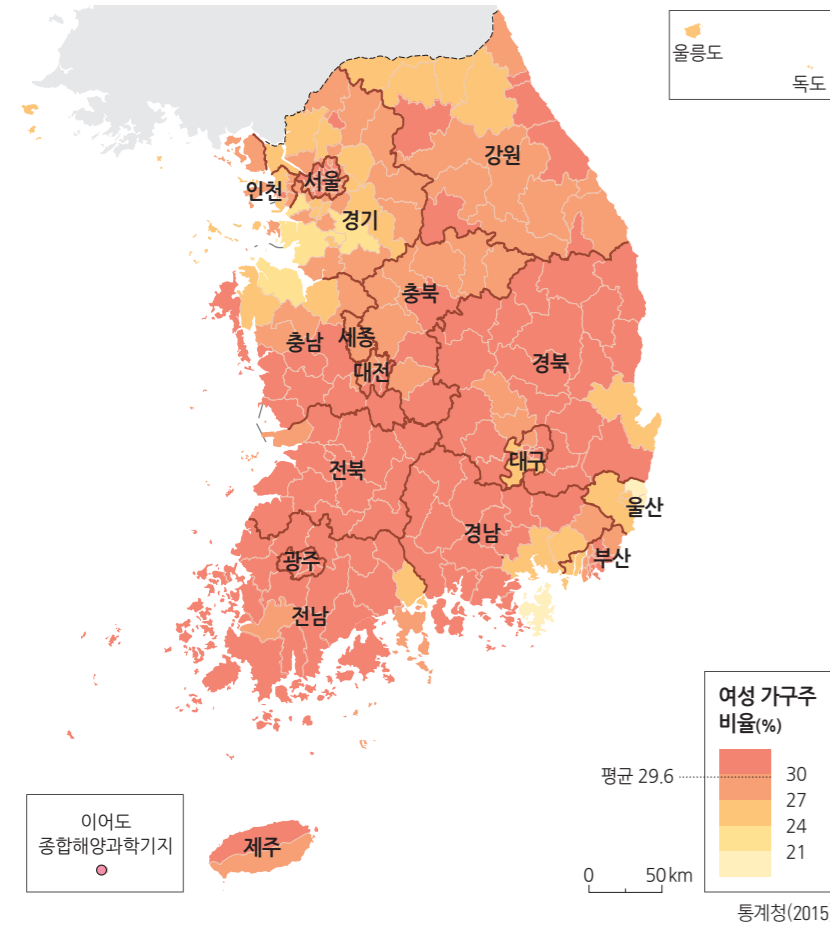
##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의 변화



성비란 여성 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 인구 수를 말한다. 성비가 100 이상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많은 것이고, 100 이하이면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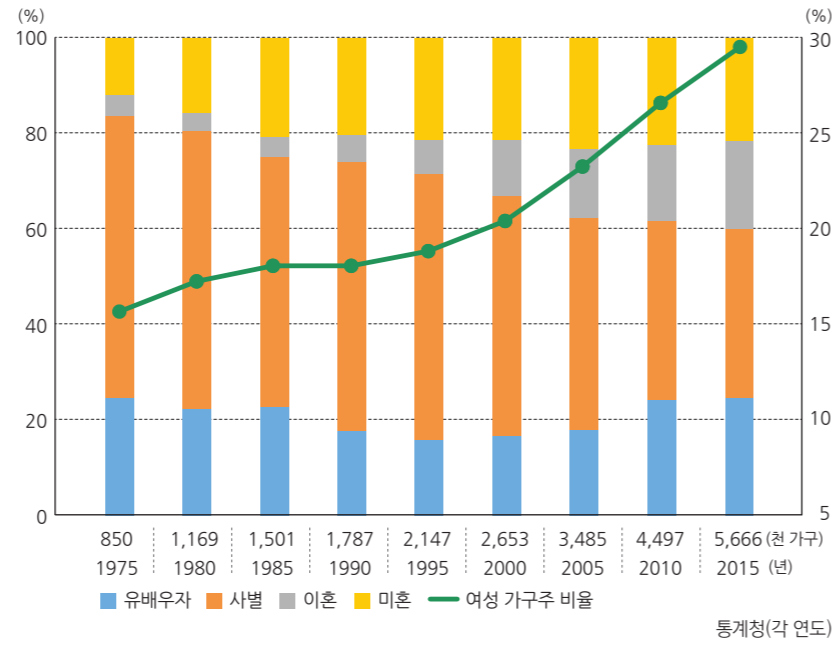
# 여성 및 고령 인구의 변화

여성 가구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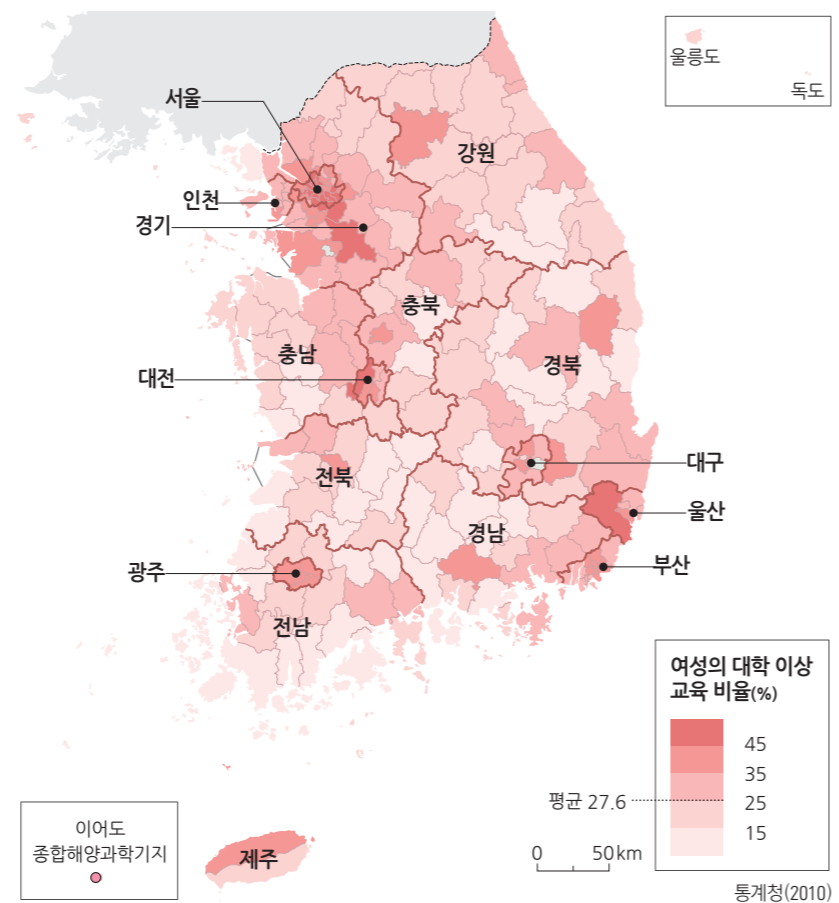


여성 가구주는 해당 가구에 거주하면서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으로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과 혼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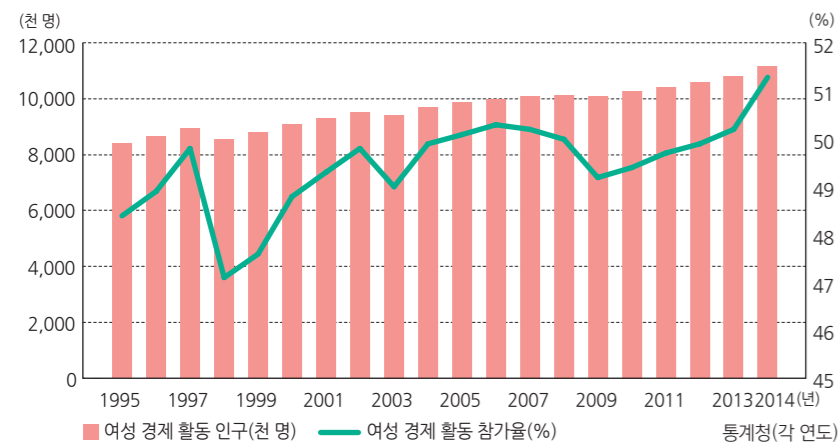


여성의 대학 이상 교육 비율



여성 인구 중 미혼자 비율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이 높으며, 농촌 지역은 낮은 편이다. 이는 다양한 교육 기관이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도시 지역의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결혼관이 바뀌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수월해지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대도시에서 여성들의 미혼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1990년 216만 명에서 2015년 657만 명으로 20년 만에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인들은 남편이나 부인과 사별한 경우가 많아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덜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노인 혼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나 혼자서 외로이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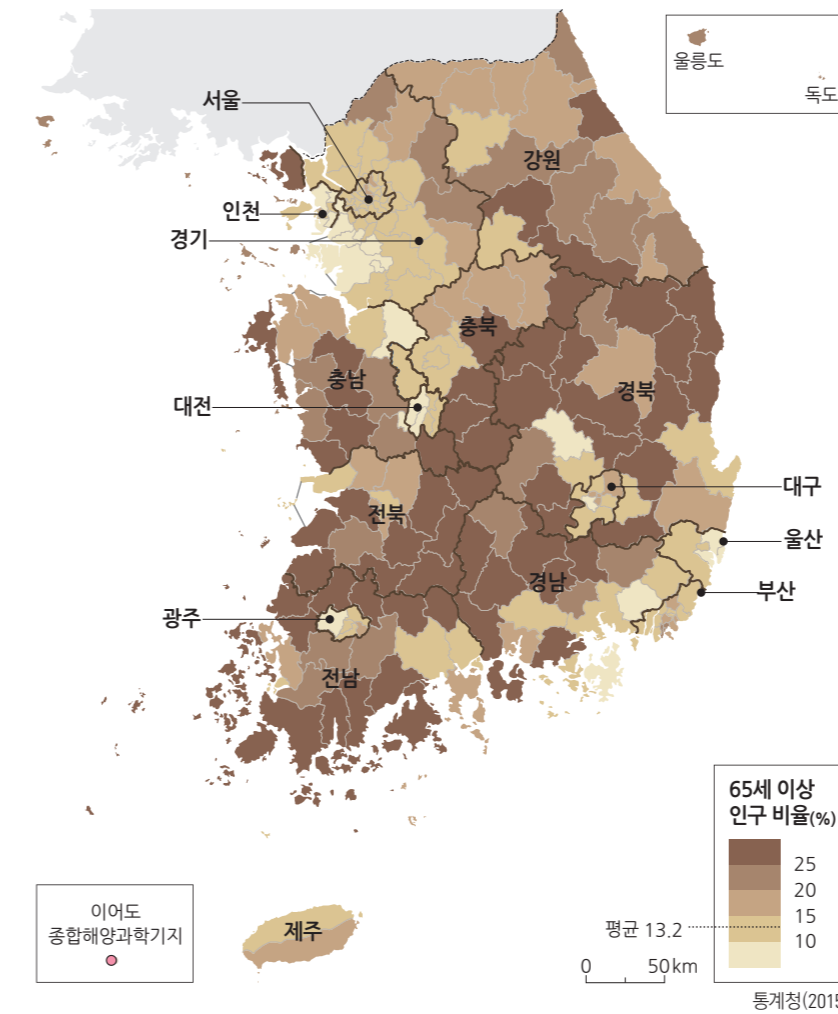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전국적 비율은 13.2%이며, 경북과 전남 등의 농촌 지역이 3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울산, 대전, 경북 구미 등이 6% 이하로 도시 및 공업 지역이 낮은 비율을 보인다.

노인 경제 활동 비율은 농촌 지역이 높으며,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이 낮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젊은층들이 취업·문화 생활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남아 있는 노인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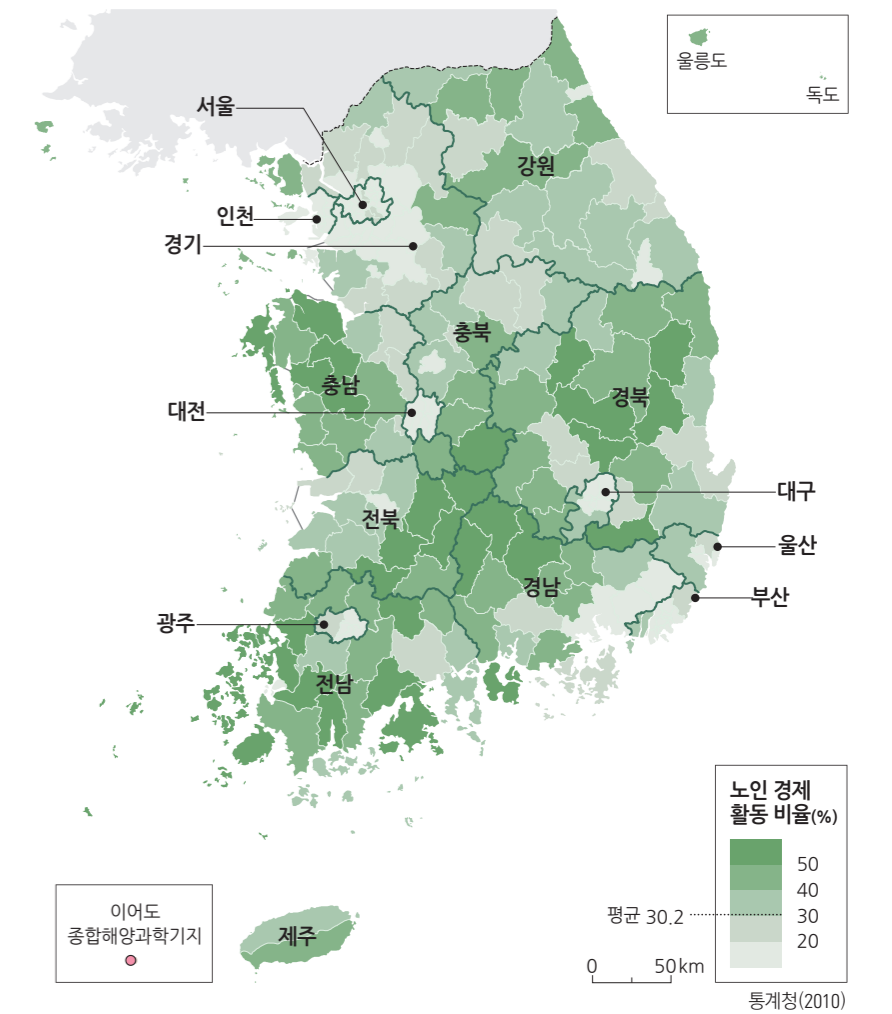
대가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가족 구성은 노인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노인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 가족의 경우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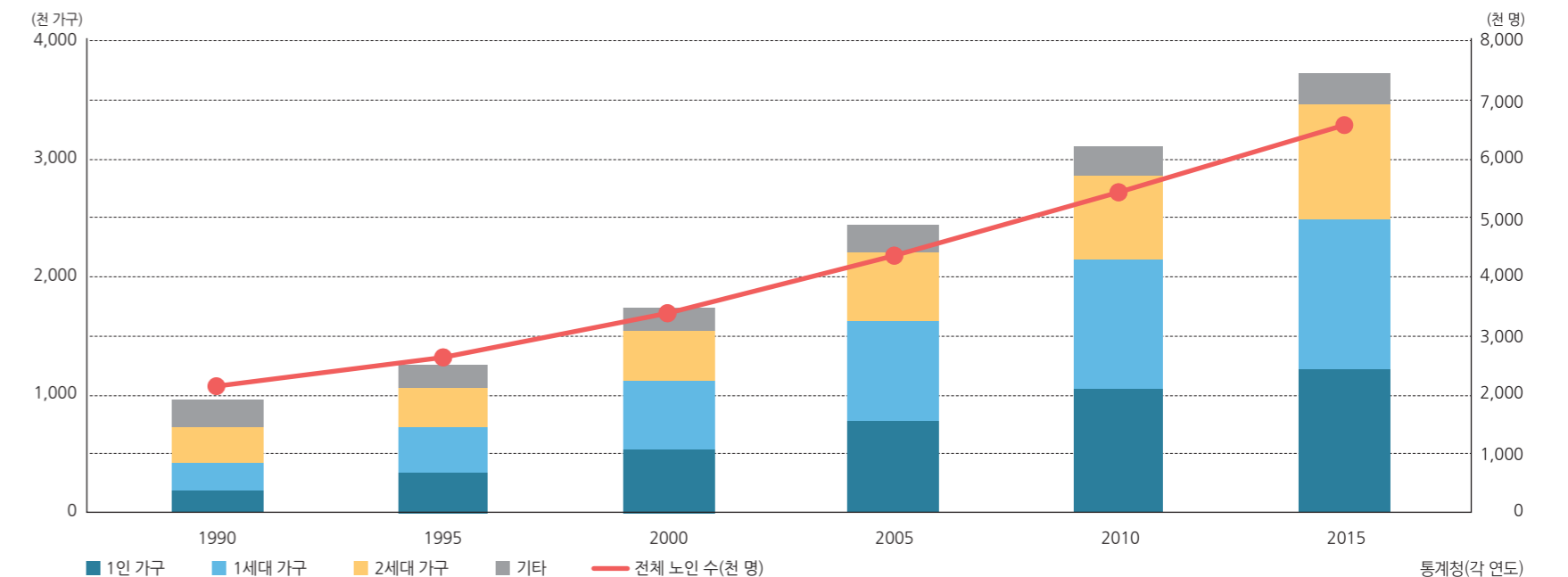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비율



노인 경제 활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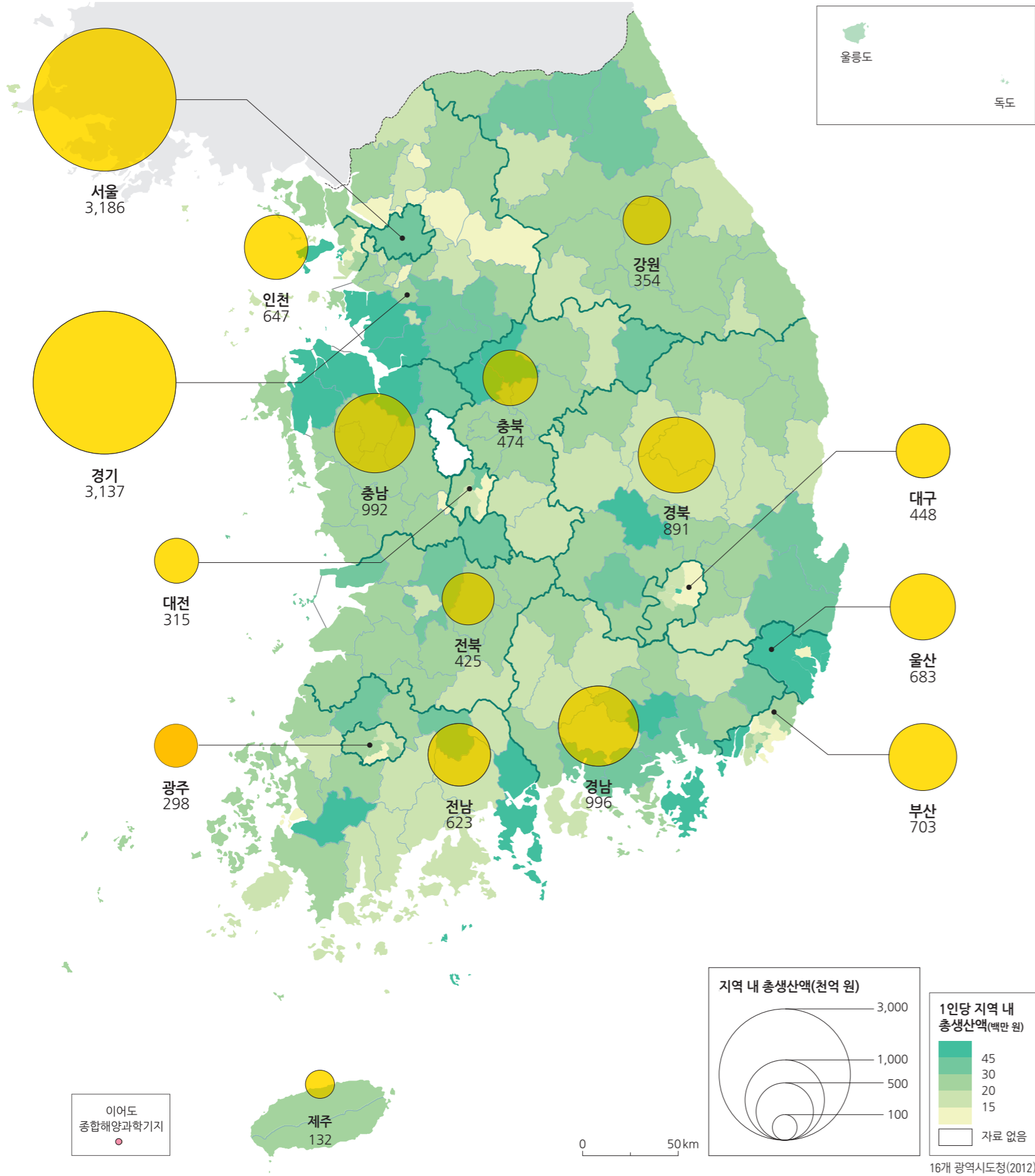


노인 가족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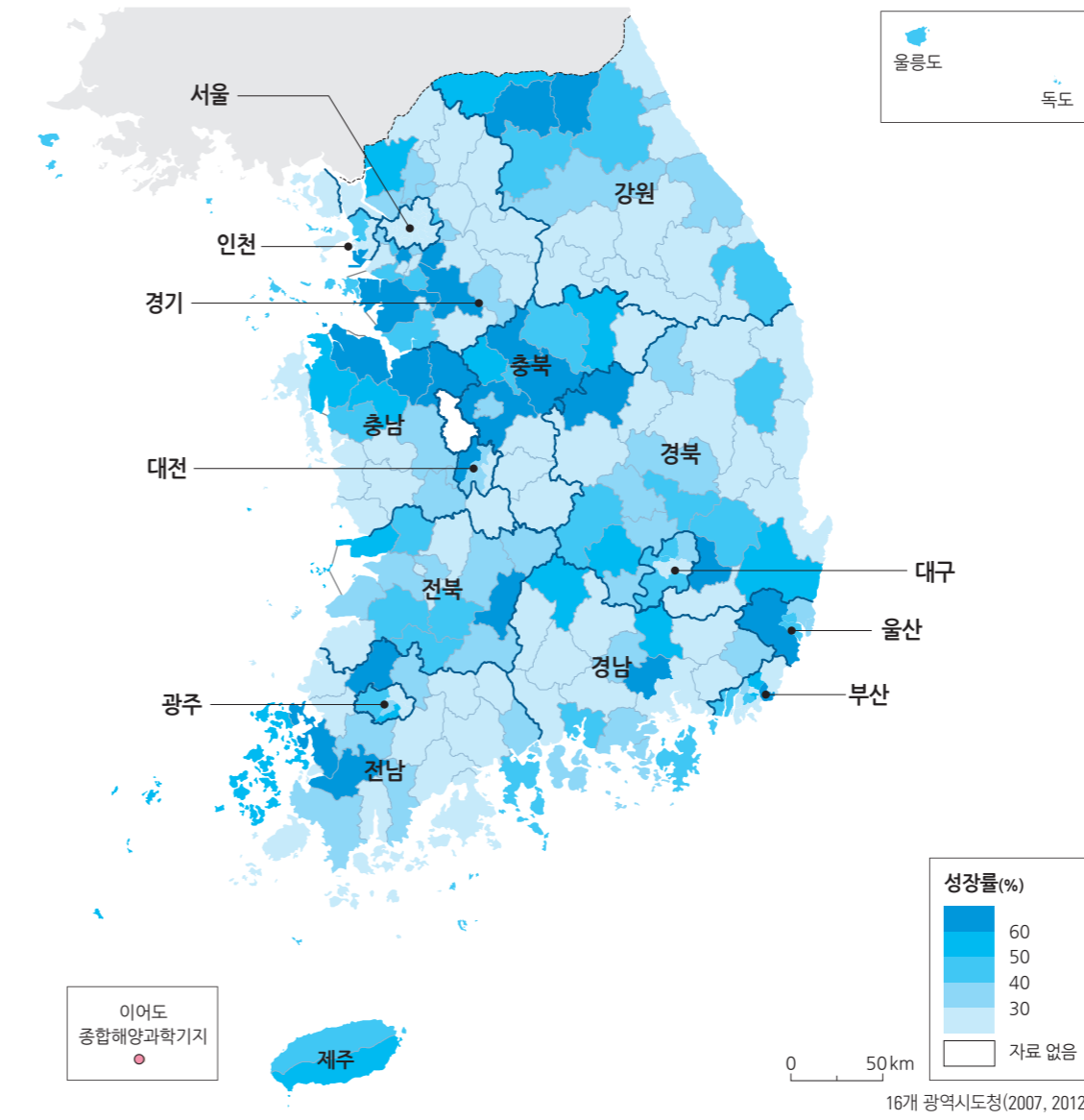


# 우리나라 경제 성장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성장률(2007~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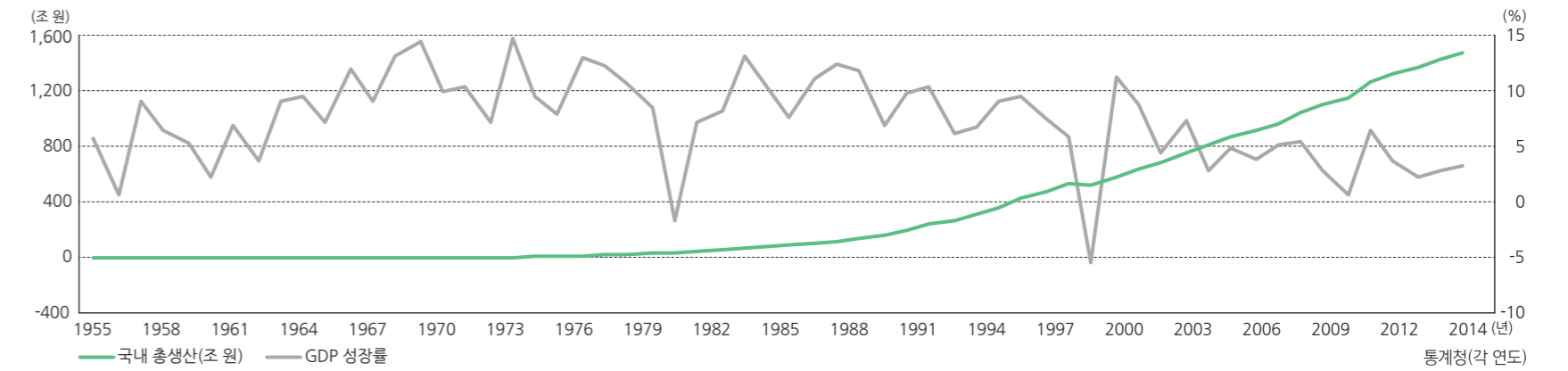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 내 총생산이다. 지역 내 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수치를 의미한다. 지역 내 총생산을 국가 전체로 확대하면 국내 총생산(GDP)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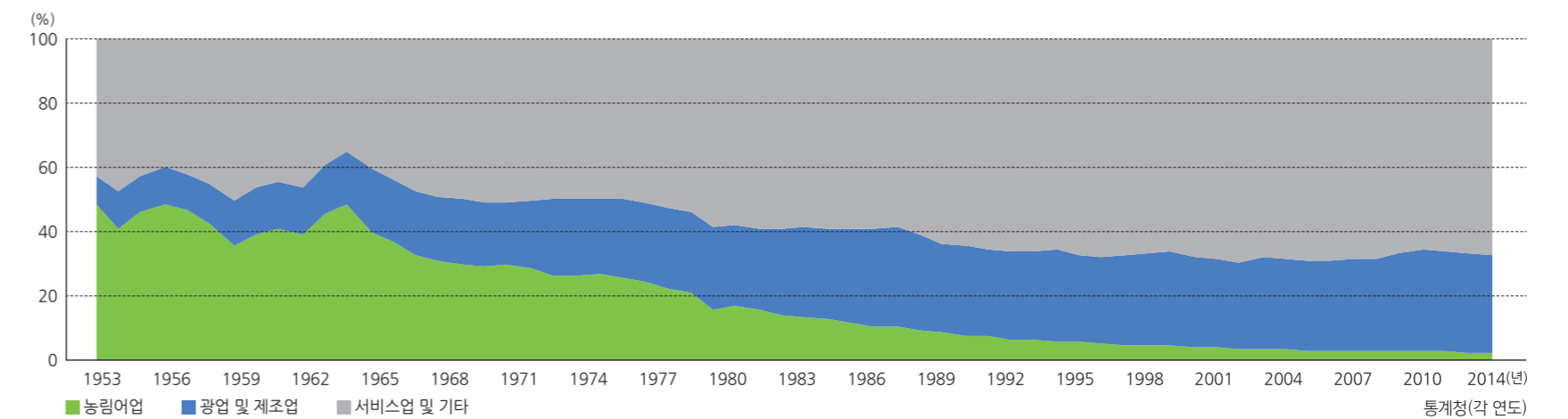
지역 내 총생산은 서울, 경기, 울산, 부산 등의 대도시 및 공업 지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지역 내 총생산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별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경기 용인과 충남 당진, 충남 천안 등 수도권 이남과 충청권의 지역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에는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1970년대 이후 2·3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국내 총생산 실질 성장률 추이



국내 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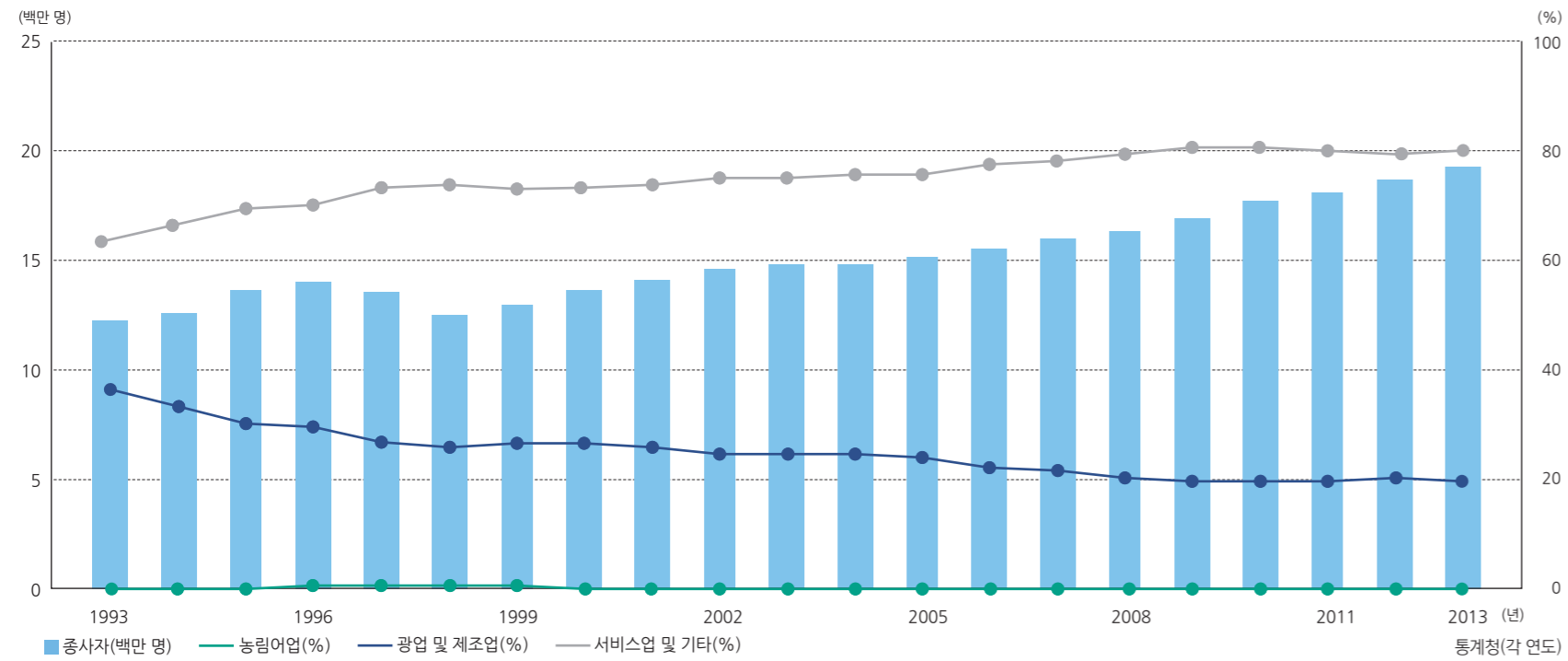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산업 구조

산업 종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농림어업과 광업 및 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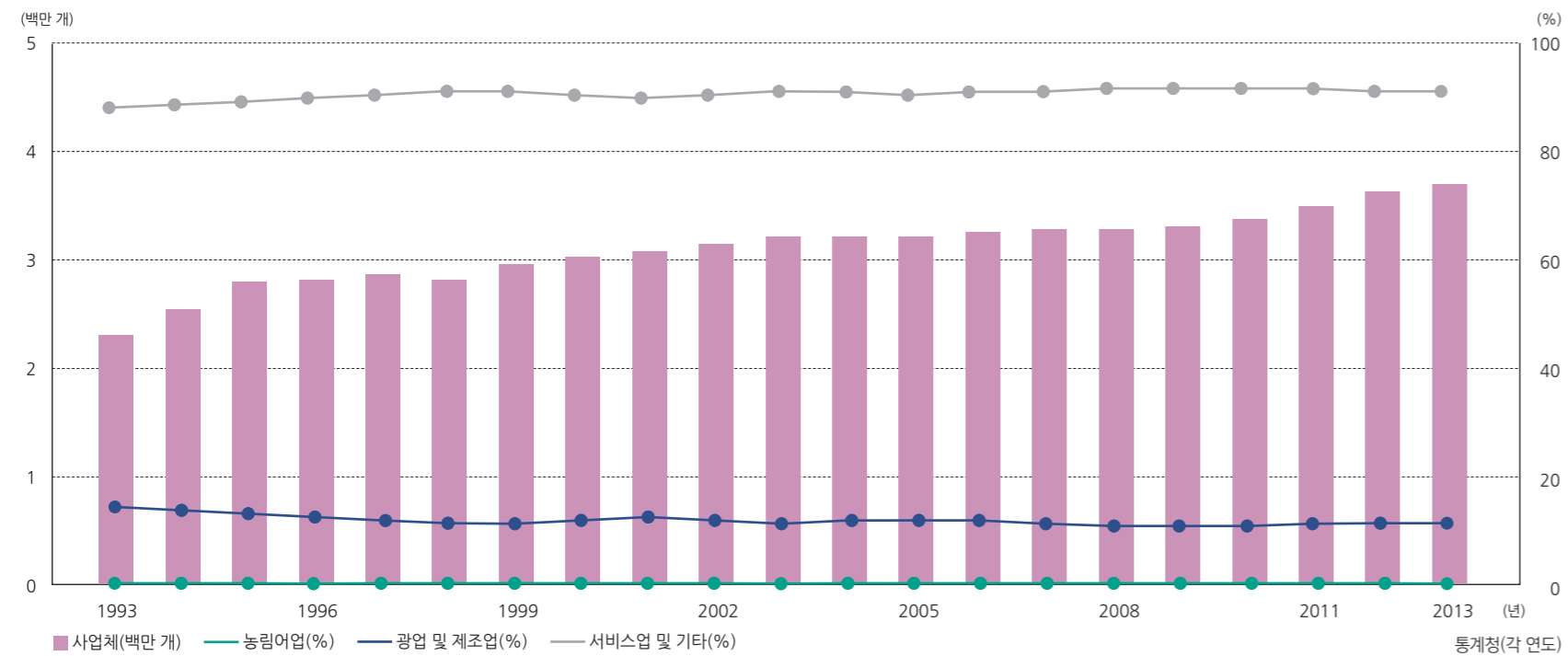
반면에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도시의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구조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1·2차 산업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각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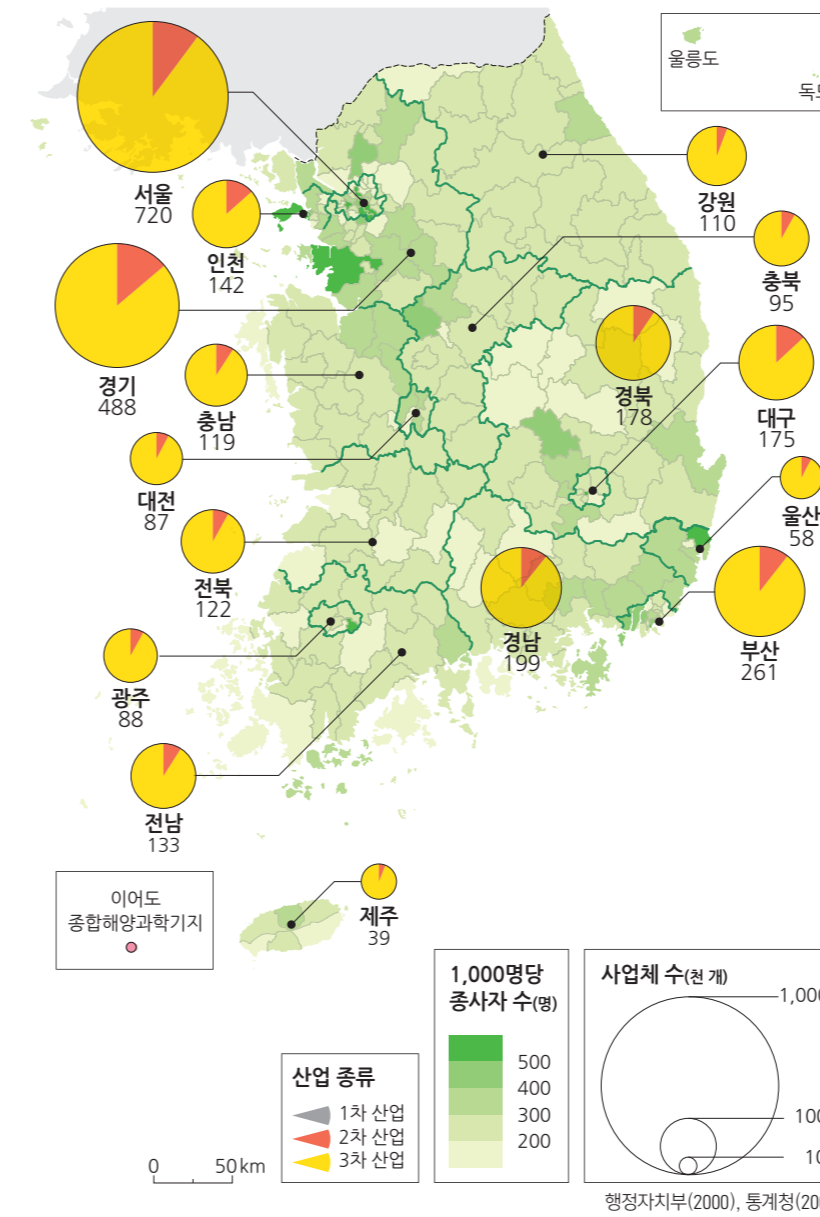
산업별 종사자 수와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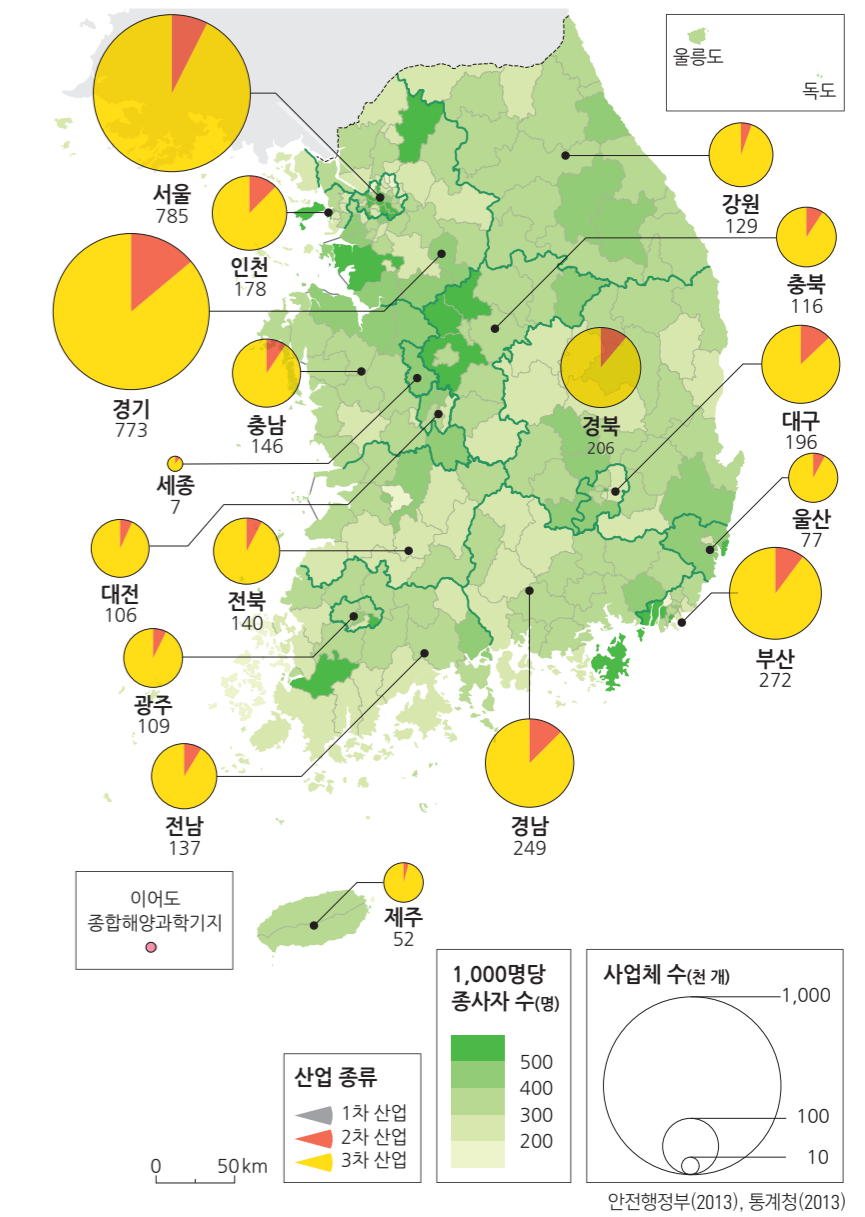
산업별 사업체 수와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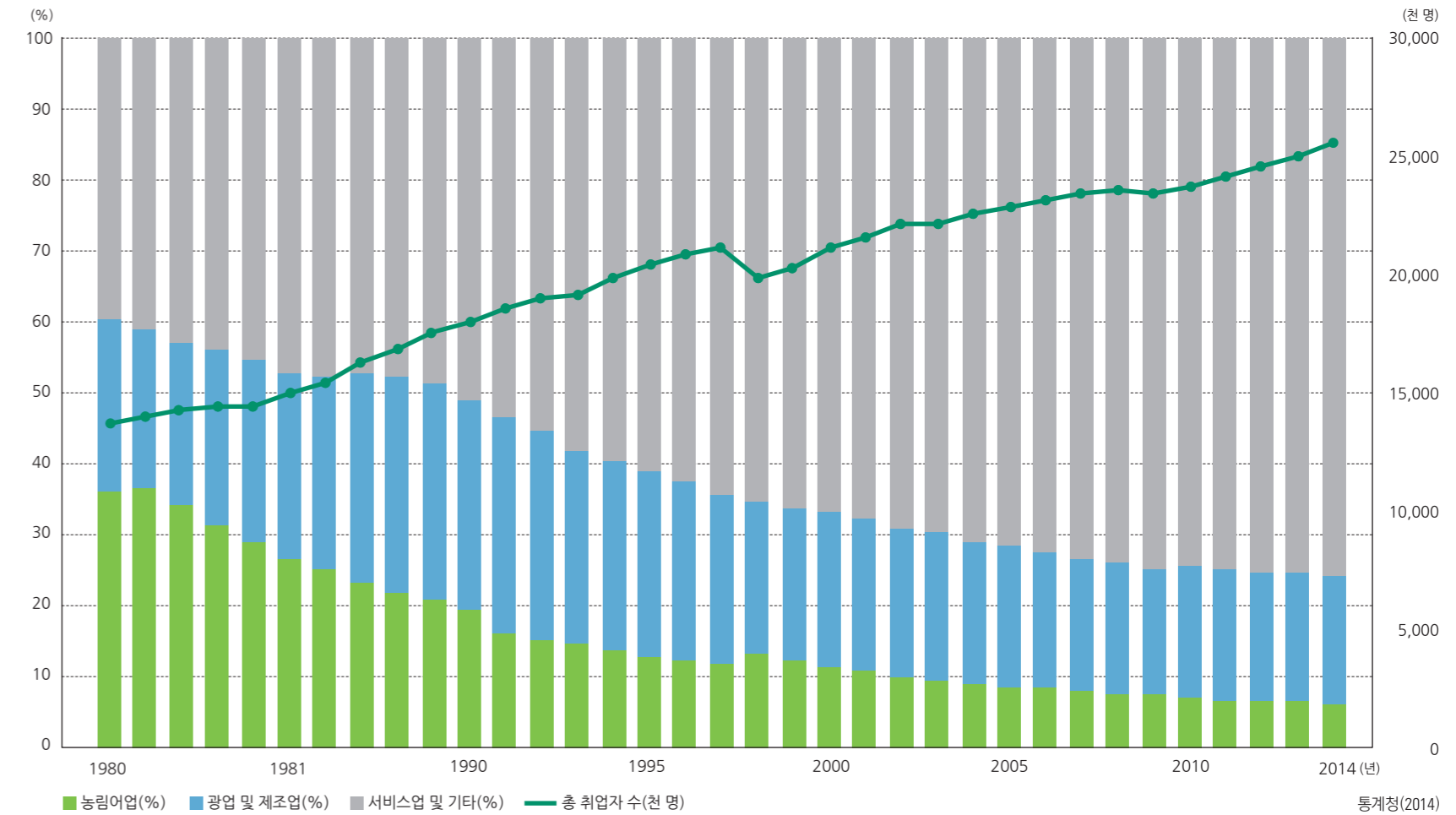
사업체와 종사자 수(2000년)



사업체와 종사자 수(2013년)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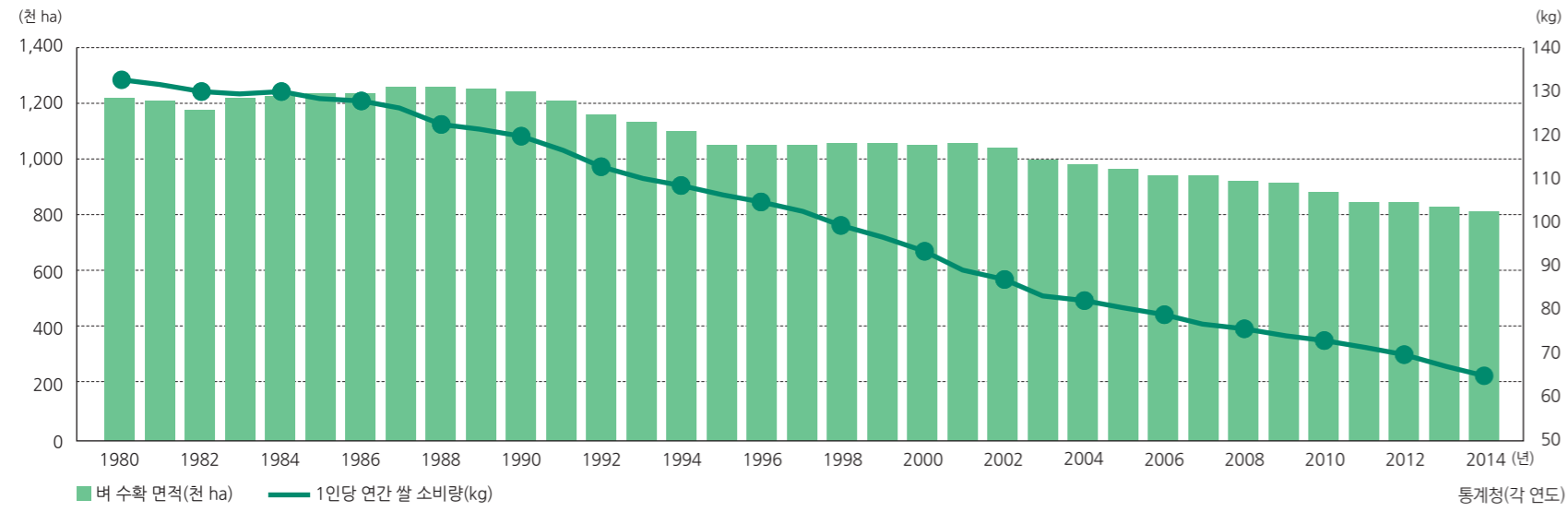
# 벼농사와 과수 재배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 구조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쌀 수확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크게 줄어 오�히려 쌀이 남

아도는 공급 과잉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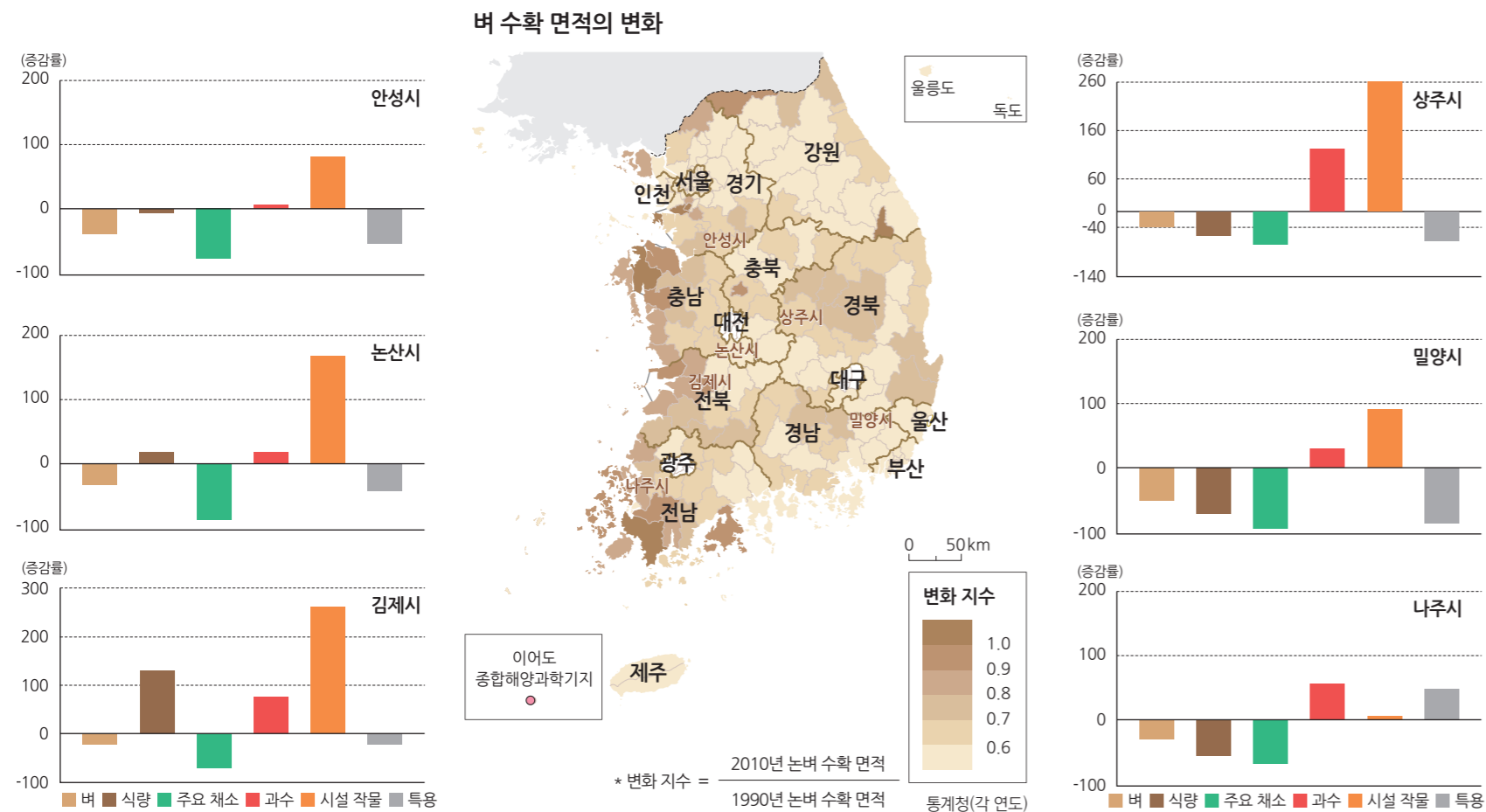
1인당 쌀 소비량, 벼 수확 면적 추이



아래 지도는 각 시·군·구별로 1990년의 벼 수확 면적과 2010년의 벼 수확 면적을 비교한 것이다. 1보다 작을수록 1990년 대비 2010년

의 벼 수확 면적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1보다 클 경우 반대의 경우이다. 2010년 현재 이들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은

1990년에 비해 수천 ha씩 줄어들었다. 반면에 과수와 시설 작물 재배 면적은 수백에서 수천 ha씩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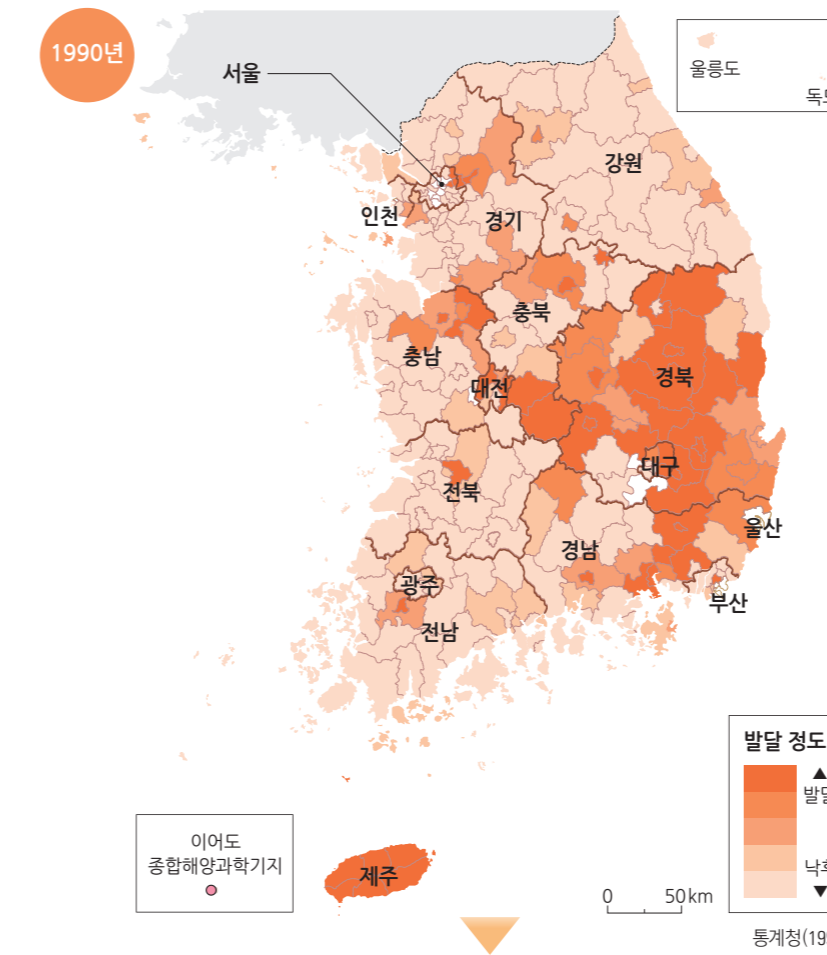


과수 재배는 1990년 당시 경상남·북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지만, 2010년에는 전라남·북도 서부 지역을 비롯해 논의 많은 충청남·북도 일대에서도 과수 재배가 성행하였다. 또 시설 작물 재배는 1990년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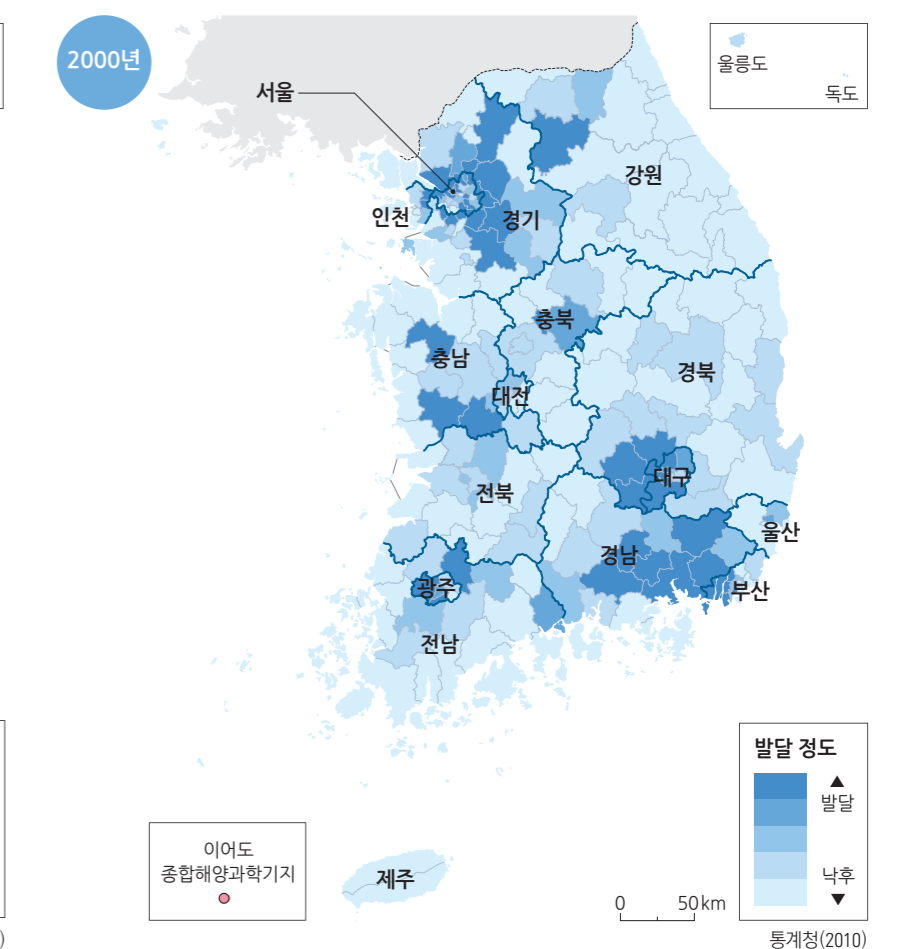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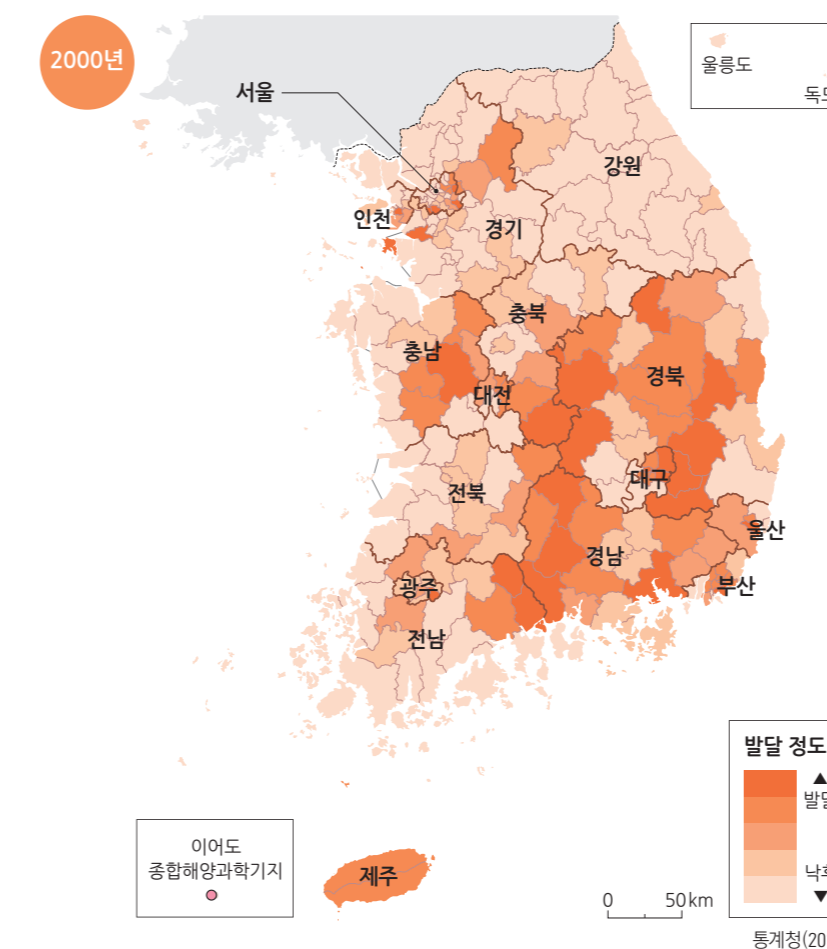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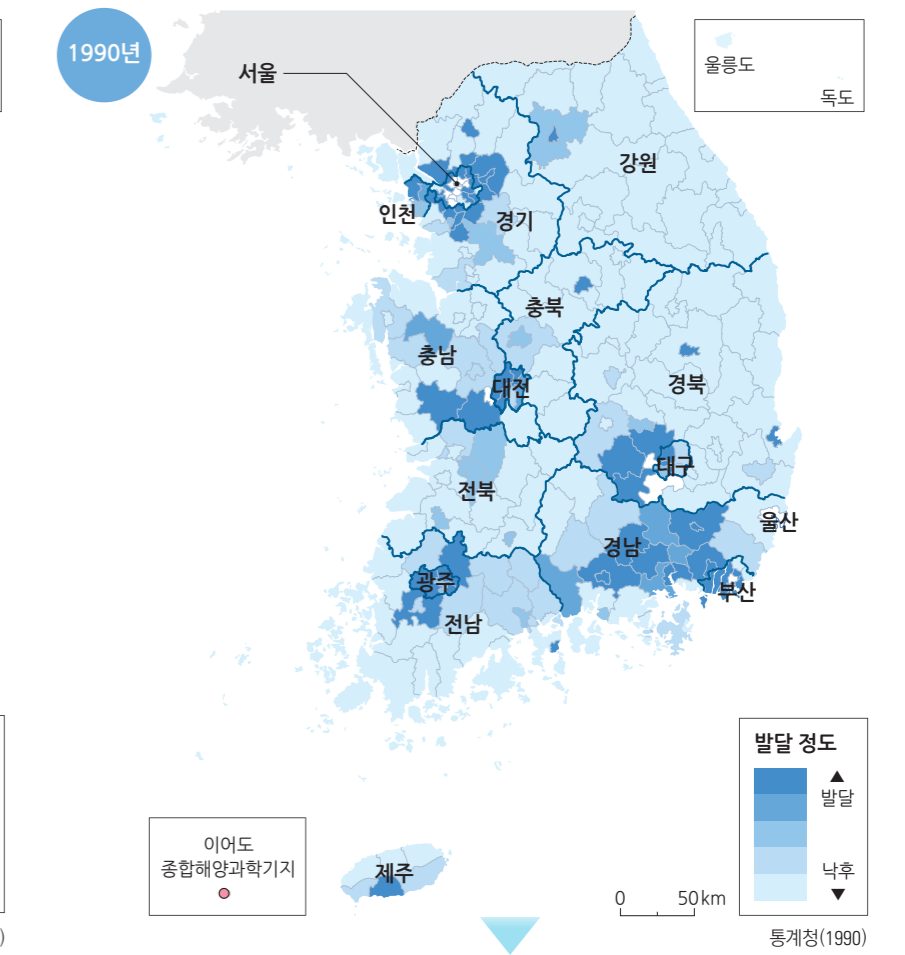
우 대도시 주변 일부 시·군 지역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10년에는 시설 작물 재배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외곽 지역을 비롯해 내륙 지역 중에서도 시설 작물 재배가

발달한 곳이 생기고 있다. 이 같은 토지 이용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외식 문화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원예 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주요 과수 재배 지역의 변화



주요 시설 작물 재배 지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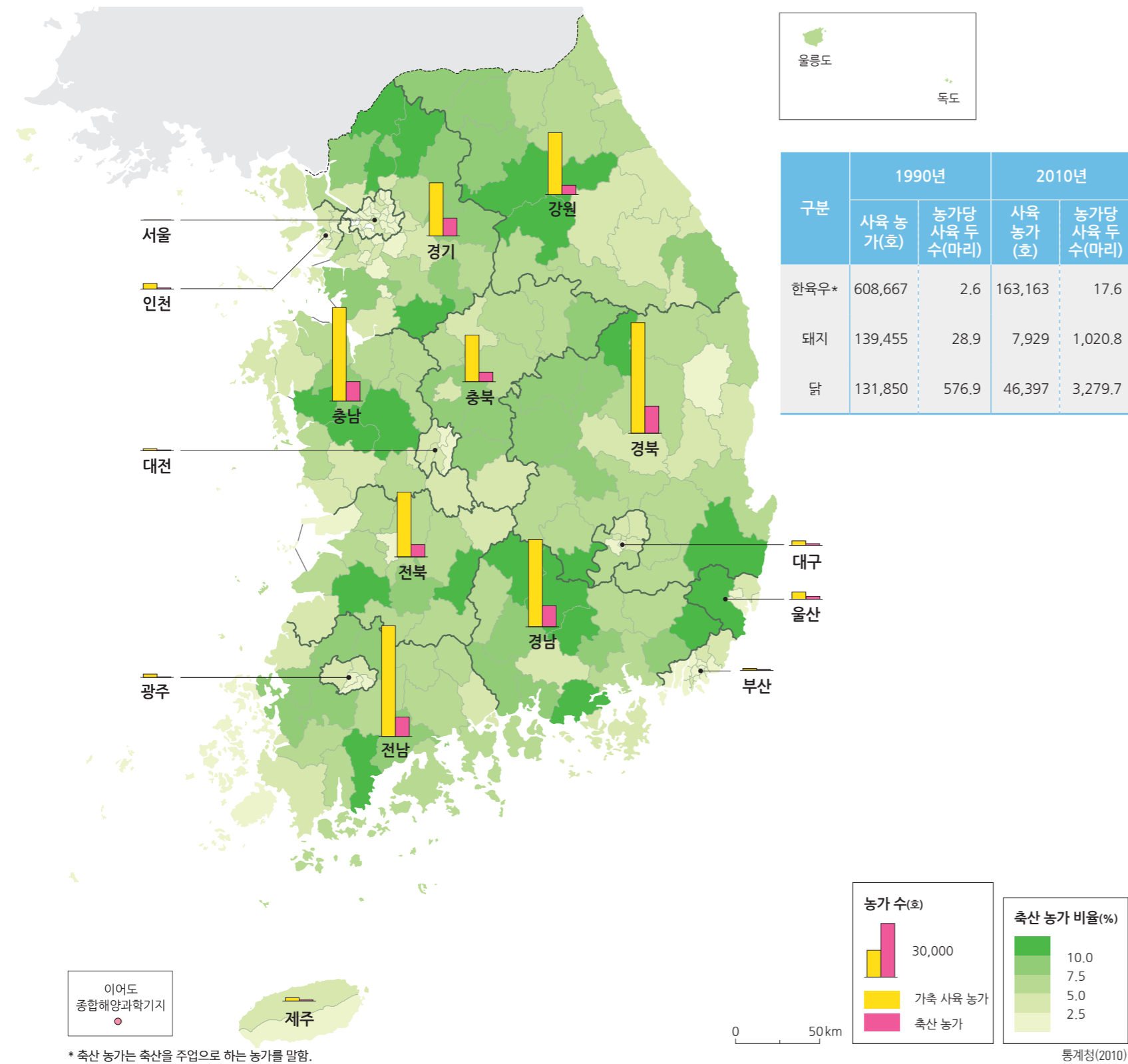
# 소, 돼지, 닭의 사육 현황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부문 중 하나이다. 표는 1990년과 2010년 두 시기의 사육 농가와 농가당 사육 두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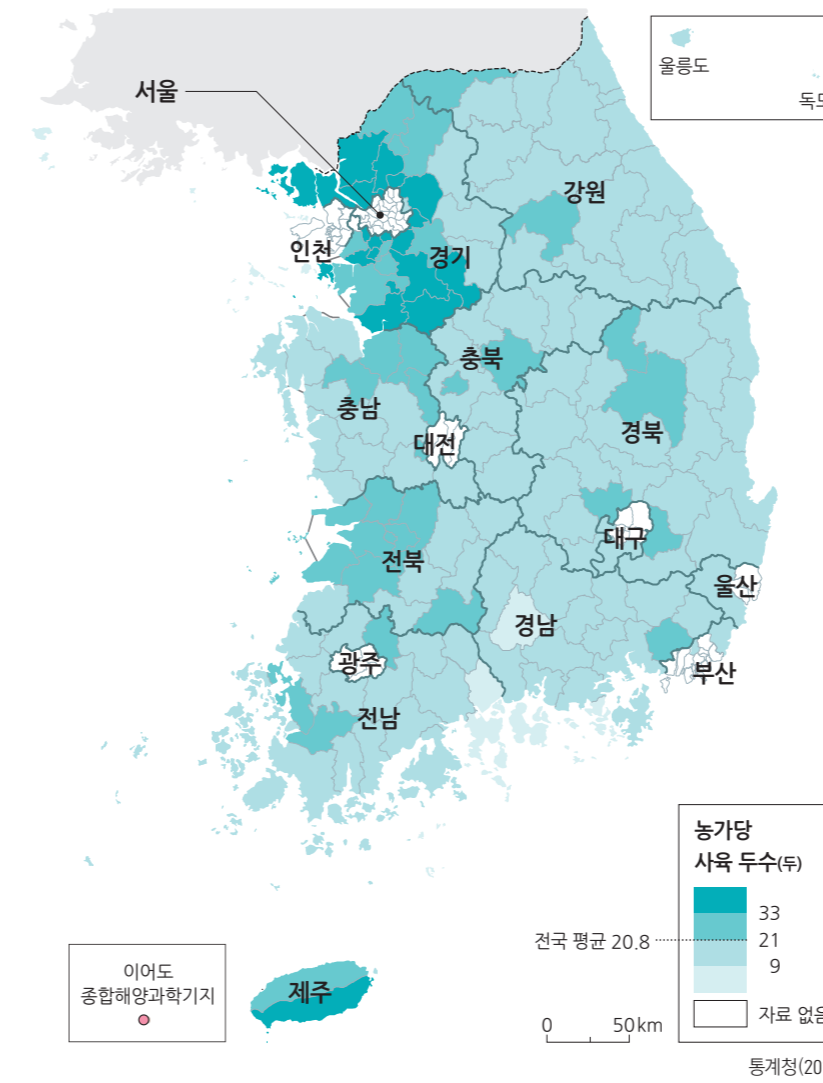
에 비해 2010년의 사육 농가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농가당 사육 규모는 비약적으로 늘었다. 축산 농가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고루 퍼져 있어 뚜렷한 지역적 집중 현상은 없다. 그러나

대규모 축산이 발달할수록 축산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 때문에 대규모 축산 농가의 입지 조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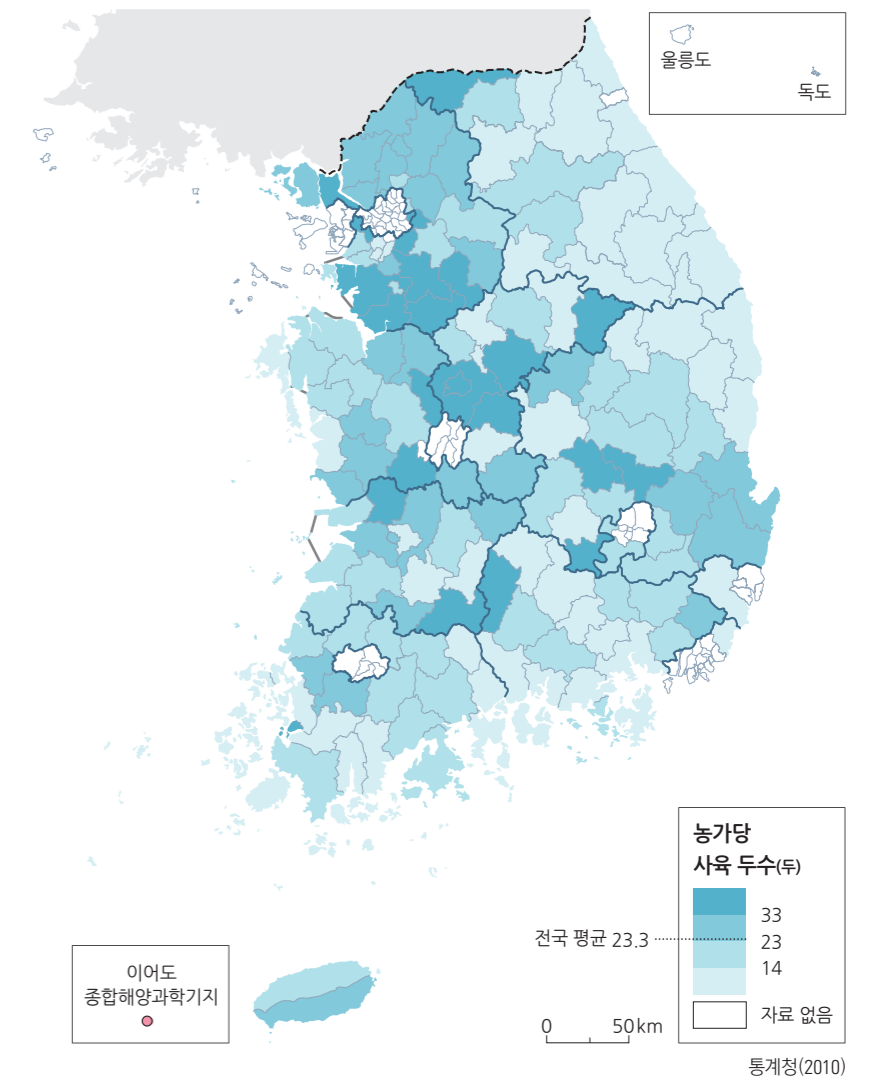
축산 농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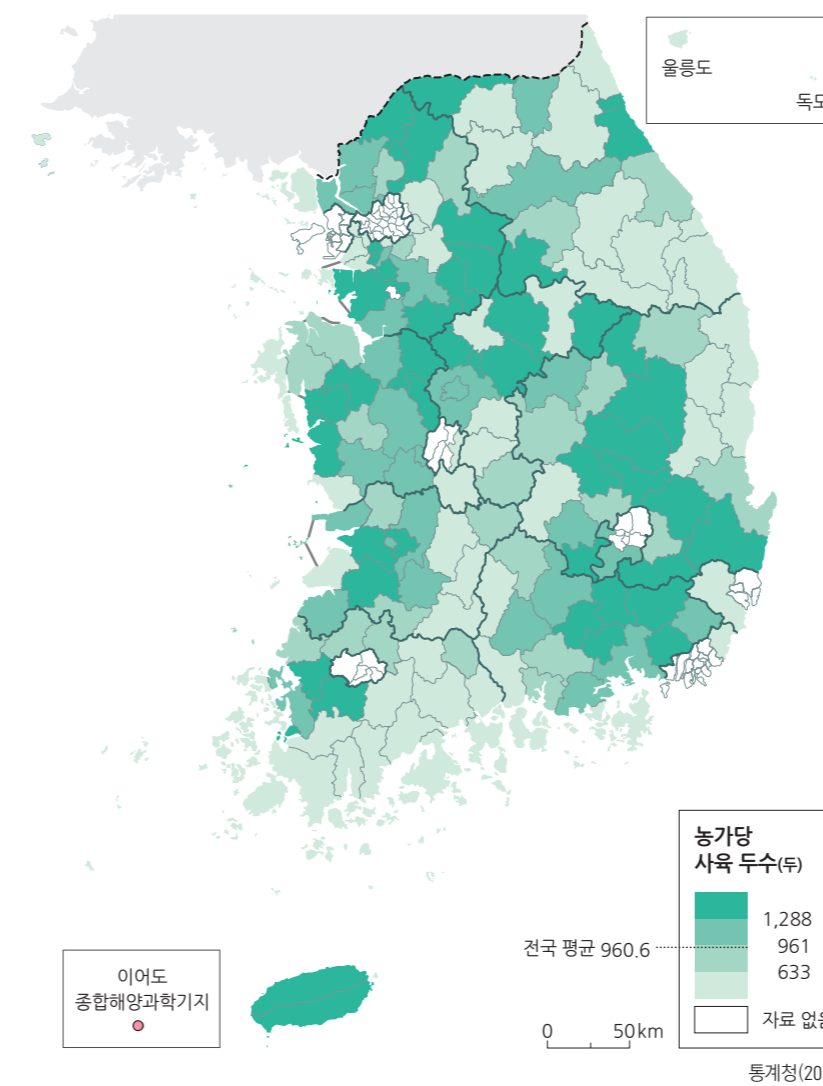
한우 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



육우 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



양돈 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



양계 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

